제8집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Review of Jeju Culture & Art Policy



발 간 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체성을 살린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문화예술진흥정책 제안을 모은 제8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정책이라 하더라도 도민과 소통을 형성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을 위한 의제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는 그동안 산적해 있는 지역 문화복지의 환경 조 성과 정책적 현안을 조명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동안 장애우,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해왔고,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알맞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째 문화시설 확충, 문화교류, 제도개선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립미술관, 한라문화예술회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한・아시안특별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에 합의했고, 문화올림픽이라 부르는 제주세계델픽 개최 등으로 문화예술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방안과 독자적 모색이 시급합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발간은 민간차원에서 문화예술계의 절실한 현안들을 지역 문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친환경적 유휴공간의 활용, 기초예술의 활성화 대책, 고문서 관리 방안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발굴한다는 데 의의가 깊습니다. 민간주도의 문화참여활동들은 그간 지역 문화정책의 성과를 더욱 값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주체가 도민이며, 소통은 도민의 몫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정체성을 살린 특별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데,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제8집 제안을 위해 고심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을 토대로 특색 있는 문 화예술정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2009. 8. 11.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 영 철

목 차

					-	311
_	F. 7				1 11/2	
		- 2		_	-	- 1
	_	- 10	ш		-	
			и.—			

문화복지 환경의 조성 방안

● 고령화 진전사회의 노인문화복지 대응방안/이정필 ———	1
● 예술치료 효과와 예술치료 환경 조성/고강호 ————	· 17
● 제주지역 장애문화예술인 지원제도 개선/고운산 ────	31
논단	
● 도시재생의 시각에서 본 남수각·관덕정 일대의 문화 공간 조성 방안/김태일	47
● 제주도 내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강민석 ────	65
● 제주미술 생산성 회복과 생태계 창출을 위한 제언/홍성석	· 73
●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회문화프로그램 개발/좌혜경 ——	87

● 제주도 지역 고문서의 현황 및 관리/윤봉택 **____** 103

고령화 진전사회의 노인문화복지 대응방안

이 정 필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차 례>---

- I. 들어가며
- Ⅱ. 고령화 진전과 파급영향
 - 1. 노인과 고령화 사회 개념정리
 - 2. 고령화 진행추이
 - 3.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문제
- Ⅲ. 노인문화복지 환경
 - 1. 노인문제와 노인문화복지 실태
 - 2. 신 노인세대의 등장
- Ⅳ. 고령화 진전사회 노인문화복지 대응방안
 - 1. 노인문화복지 비전과 방향
 - 2. 노인 문화복지 협력체계 구축
 -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V. 나가며
-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21세기 중요한 메가트랜드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전 세계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전의 속도이며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다. 그 가운데 부양부담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세대 간 갈등,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또 다른 메가트랜드는 문화시대이다. 지난 세기 말부터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에는 문화가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논리였으나 오늘날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생존권으로 바라보면서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복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우리 사회의 노인정책은 취약한 노인의 의식주와 건강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노인의 문화복지는 유보되어 오면서 그 주요 대상이 아니었고 일관성과 지속성 없이 진행되어 왔다. 아직 노인문화복지는 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학술적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와 '복지'의 복합명사인 '문화복지'의 논의는 이념 및 개념의 배경과 환경이 다른 문화예술계와 사회복지계가 제시하는 출발점과 강조점을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가 지향하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접점을 활용한다면 미래사회의 노인문화복지 대응에 있어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본고는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인문화복지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고령화 진전과 파급영향

1. 노인과 고령화 사회 개념정의

'노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시기별, 국가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정의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연금법은 70세, 미국은 65세, 중국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규정이 법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자 국제연합(UN)이나 국제협력기구(OECD)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1) 하였다. 본 내용에서 노인은 국제노년학회 정의를 따르면서 퇴직 후의 인구 층을 포함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본고에서의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비율이 7%인 사회가 아니고 '일반적 의미의 고령화 사회'의미를 적용하였으며 '고령화'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2. 고령화 진행추이

1) 노인인구 비율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1)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규정한 노인의 개념

예측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노인인구는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노인인구 변화추이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전국	3.1	3.8	5.1	7.2	11.0	15.6	24.3	38.2

자료: 『장례인구 추계』, 통계청, 2007.

2) 평균 기대수명

수명 연장은 고령화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인생주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62.3 세에서 2000년 76.0세, 2010년 79.6세, 2050년에는 86세로 점차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5.7	71.3	76.0	79.6	81.5	83.1	86.0

자료: 『장례인구 추계』, 통계청, 2006.

3) 생산인구와 부양지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50년 72%로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부담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만원)

(단위: 연도, 연)

〈표 3〉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추이2)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5.0	21.7	37.7	72.0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67.7	125.9	213.8	429.3

자료: 『장례인구 추계』, 통계청, 2006.

4) 고령화 진전속도

〈표 4〉를 보면 1865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미국 71년, 독일 40년이소요되었다. 한편 일본은 24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증가하고 있다.

〈표 4〉 주요국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소요기간 구분 $7\% \rightarrow$ $14\% \rightarrow$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14% 20% 한국 2000 2026 2018 18 8 일본 1970 2006 1994 24 12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프랑스 1864 2026 1979 115 41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자료: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2005.

²⁾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 인구)×100

3.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문제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유발시킨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이며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1)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 자체의 연령도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생산인구(15~64세)는 2016년의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2,242만 명으로 34년만에 1,377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인구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생산인구 중 25~49세 비중은 2005년의 59.6%를 정점으로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4.4%로 하락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생산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0.5%에서 2050년에는 40.9%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2018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2) 공적연금 측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IMF 이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가 가 운영하는 확정지급형 연금이며, 부분적립방식(partally funded system)으로 운영된다. 부분 적립방식 연금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국민연금은 아직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지출대비 수입이 초과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률(수급자/가입자)이 2002년 4.5%에서 2010년 13.3%, 2030년 41.9%로 급증하고 2020년 대 후반부터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여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고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국민연금법은 지난 2007년 7월에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과정에서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른 결과는 연금적립기금의 완전소멸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춘

³⁾ 최숙희 외.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07. P. 15.

⁴⁾ 최숙희 외, 상게서 P. 60.

(단위 : 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기하급수적 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첨 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3) 건강보험 측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 의료비지출이 과다해지면서 건 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5)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2007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지출액은 2000년 62,258원에서 2007년 173,217원으로 2.8 배 증가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가속돼 재원분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

4) 회색 파워의 대두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의 수적 우세가 세력화되어 정치·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노인들의 욕구표출이 가속될 것이며, 정치집단화도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를 '고령시민파워(sen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파워(gray power)'라고 한다. 고령화의 진전은 단순한 세대 차(genera tion gap)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를 바탕으로 혜택을 더 받으려는 노인세대와 부담의무를 질 생산 세대 간에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갈등은 우리보다면서 고령화가 진전된 국가에선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에 발족한 후 미국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미국 은퇴자협회'이다. 이들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를 법제화하였고 기업의 정년제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27%에 불과하던 총 선거권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 38%, 2020년 46%에 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세대의 투표율이

⁵⁾ 고령화를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수입 15.08 19.0 27.5 42.2 56.9	62.9	56.9	40.0				
기초 17.0 91.9 94.0 54.9 79.9	00	30.5	42.2	27.5	19.0	15.08	수입
시골 17.0 21.5 34.9 34.5 72.2	79.1	72.2	54.3	34.9		17.0	지출
-1.92 -2.3 -702 -12.1 -15.3	-16.2	-15.3		-702			

자료: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젊은 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정치적 파워도 예외는 아닐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Ⅲ. 노인문화복지 환경

1. 노인문제와 노인문화복지 실태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문제는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상실, 정보의 단절로 인한 세대 간의 의사소통 부재, 사회적 부양의 문제 등 다양하다.

개인적 측면에서 노인의 어려움6)은 4가지로 알려져 있다. 55세의 조기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는 55세부터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년기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노년기의 삶은 일반적으로 무위(無為)와 고독을 특징으로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오랜 세월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갖지못한 채 겪는 무위와 고독은 질병 및 소득상실로 야기된 노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노년기의 복합위기(multiple jeopardy)를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 파동의 위협과 노인의 개인적 삶의 질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이를 아우를 노인문화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의 문화 향유수준은 다 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7) 공공시설에서도 노인대상 문화프로그램은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는 사회보장 중심이어서 문화적 측면이

⁷⁾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조사시점 전 1년 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65세이상
비율(%)	76.6	77.5	67.7	52.1	37.5	21.9	19.4
횟수	7.2	10.2	6.8	5.5	4.7	3.5	3.4

자료: 『2007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⁶⁾ 노인의 4고(四苦) :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로 인한 어려움, 상실, 소외와 고독

미흡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노인을 주요 대상화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여가 시설 운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의 무료할인혜택과 문화향수기회의 증대를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게 노인문화복지의 전부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 조차에서도 노인은 소외되고 있다.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9)에 노인문화복지를 위한 조항, 예를 들어 여가와 문화, 교육과 정보격차 해소 등이 포함10)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문화복지는 목적과 방향조차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11)

2. 신 노인세대의 등장

최근 No老세대라 불리는, 의존적이고 부정적 노인의 모습과 달리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에 잘 대처하는 긍정적 모습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철저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12)

현시점에서 노인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세대는 서서히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¹³⁾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층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층을 지칭한다. 이 시기는 한국역사상 가장 높은 다산시대로 베이비부머(Baby boomers)는 현재 총 816만 명에이르고 있다. 이들은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끌어 온 주역으로 생산의 주체, 또 소

8) 2007년 문화바우처 지원실적(지역별/대상별, 2007)

(단위 : 건)

지역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자	계
전국	85,052	19,695	3,887	15,290	26,908	150,832
제주	2,294	148	3	78	432	2,955

자료: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9) 법률 제7496호 신규제정 2005. 5. 18.
- 10)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 간 정보의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1) 조현성, 「노인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P. 107.
- 12) 김세훈 외,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13)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6.8%, 현재 유권자 수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세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며 자산시장 변화의 주역(류정아 외, 2007, P. 54).

비의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주도해 왔다. 출산율 자체가 인구학적 일탈이었으며 과밀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 학령기에는 교실이 모자라 2부제 교육이 실시되었고, 대학입학 시기에는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인 1980년대는 수요초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40대에 접어든 2000년대는 교육·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의 집 값이 올랐다. 사회는 이들의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존질서와 가치관, 사회시스템에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전환내지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4) 이들은 '7080'이라는 독특한 문화코드를 만든 세대이며, 최근 웰빙문화에도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등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으로서의 삶은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시켜 나갈 것이란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들은 기존의 노인과는 다른 문화적 욕구와 능력으로 새로운 노인문화를 발현시킬 것이고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사회성원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할 것이다.

Ⅳ. 고령화 진전사회 노인문화복지 대응방안

1. 노인문화복지 비전과 방향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부양부담의 경감과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한계화되고 있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 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일생을 통해 축적한 삶의 지혜와 경륜을 사 회자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향후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 인을 수혜자로 삼아서는 급증하는 노인층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 노인층의 욕구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사회 노인문화복지의 핵심적인 방향의 한 축은

¹⁴⁾ 함인희,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제8장, 나남출판사, 2002, P.232.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로 집약할 수 있다. 활동적 고령화는 노인의 사회참 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데, 노인문화복지가 담당할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것이다. 따라서 노인문화복지의 방향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문화복지 협력체계 구축

문화복지는 그간 정책용어로 사용되어 오면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리 진행되어 왔다. 문화복지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기본 뱡향이 정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문화복지였다. 1990년대에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문화향수증진이, 2000년대에는 선별적 서비스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향수의 증대가 문화복지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인문화복지는 광의적 해석과 협의적 해석의 행정·정책과정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법 제정이다. 문화복지법령이 제정되고 그 틀 안에서 노인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방안이 최선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복지법령 제정이 유보될 수밖에 없다면 차선의 방안은 범정부차원에서 노인문화복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상적으로 촉발되는 수요에 대응하며 단위사업 방식으로 노인문화복지를 진행하면서 부처 간 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노인문화복지를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체는 노인 문화복지의 종합계획, 방향결정,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그리고 부처의 역량에 따른 협력과 역할 분담, 부처산하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문화복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고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은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별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1)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측면에서도 소득보장, 사회적 역할 취 득, 여가활용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일반적으 로 생산성이 없는 단순 소비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의 효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매개'로 하여 노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노인의 문화능력 개발을 위한 환경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업 역할수행에 따르는 능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체는 노인 일자리기관과 노인복지기관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를 포함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기관은 현재 노동부 산하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인재은행과 고용지원센터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노인취업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크립등이 있다. 교육의 담당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150에서 하되 고용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도 교육과 고용이연계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인인력운용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해설가 파견사업'이 그것인데 기존의 문화예술관련 일자리를 확고히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체제를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노인문화복지로서 노인일자리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노인에 의한 일자리'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노인문화복지의 방향이 자칫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배제할 우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의 예로 문학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무용치료 등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관된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술적 소양이 있는 노인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사로 양성

¹⁵⁾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축을 중앙정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온 '기초단위 지역센터'(25개소)와 함께 2009년에는 권역별로 수도권(서울), 강원, 충청(충남), 호남(광주), 영남(경남),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에 우선 지정되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하고, 노인 일자리 기관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노인복지기관에서 치매, 우울증, 인간관계부적응 등 치료가 필요한 수혜노인을 연결하는 역할분담 방식이 그것이다.

2) 노인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화를 매개로 하는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이 수혜자가 아닌 문화의 공급자라는 주체적 위치에 설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공헌이라는 보람 과 자긍심을 제공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통합의 완성을 돕는 효과가 있고, 사 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의 축적된 역량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노인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는 노인의 문화봉사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홍보는 노인문화 봉사활동의 내용과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신문·TV·라디오·잡지·포스터 전광판·게시판·스티커·유인물·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노인 문화봉사에 참여할 노인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노인이 적극적으로 문화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건강이 양호한 문화·예술계 퇴직자 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에 적합하고 노인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면서 문화·예술 자원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음악·미술·무용·문학·연극 등 세부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세부분야 내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문화·예술 자원이나 능력의 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이 무보수성이지만, 노인 자원봉사자는 경제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봉사활동 재료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저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자원봉사저축제도, 자원봉사 보험제도, 자원봉사 신분인정제도 (예: 신분증, 단체복), 자원봉사자 무료티켓제공, 지역사회 편의시설 할인혜택 부여,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사례발표회, 포상 및 각종 격려모임 등의 다양한 비물질적 보상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원봉사는 전문적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관장할 기관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관장기관은 문화복지 전담조직 내에 노인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부서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화복지 자체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체계적 관리는 자원봉사 기본법에서 규정한 전 국민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보, 욕구 파악, 자원봉사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기획과 시행, 프로그램개발과 진행, 평가, 자원봉사활동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manag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할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기본사업비 등의 재정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나오며

고령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조망과 관측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노인들의 삶을 예측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세를 훌쩍 넘길 것이고, 활기차고 부유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거리에 넘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사회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하고 일하는 것' 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도와줄 실버산업이 주목받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노인을 위한 기술환경이 발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중요 한 화두가 되었던 사고(四苦)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 해 봉사하는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낼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미래사회를 예측해보지만 장미빛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노인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문화복지가 이를 담아 낼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분석』, 2006.

김미혜,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색』,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논 문집, Vol. 5, No2 2004.

김세훈.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류정아 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문화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07.

최숙희 외,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07.

함인희,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제8장, 나남출판사, 2002.

백인경,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조현성, 「노인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최현묵,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 공연예술전공 박사학위논문,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백서』

예술치료 효과와 예술치료 환경 조성

고 강 호 (뫔사랑 아동가족심리치료센타)

----(차 례〉--

- I . 서론
- Ⅱ. 예술치료의 의미와 가치
 - 1. 미술치료
 - 2. 음악치료
 - 3. 문학치료
 - 4. 사이코드라마
 - 5. 비블리오드라마
 - 6. 사회극(sciodrama)
- Ⅲ. 예술치료의 효과-드라마치료 사례 중심으로
 - 1. 비블리오드라마
 - 2. 사이코드라마 효과
-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 . 서론

"예술은 바로 치료이다."(Kunst ist ja Therapie)라고 말한 Beuys는 인간이지난 창의성을 바탕으로 예술을 치료에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간은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통찰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사회적 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예술(Kunst: art)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미적 활동이 지난 치료적 기능으로 인해 창작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김춘경, 2004)

인간의 무의식과 창의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 20세기 후반 동안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드라마치료가 새로운 분야로 대두되어 표현예술치료가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1960~1970년대 초까지는 예술가, 심리학자, 교육자, 철학자, 과학자들이 함께 상호 통합적 접근 시도 속에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 왔던 실험과 탐구 시기였다. 이들은 한동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연구된 것들이 서로 유사한 연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단계에서 예술영역의 혼합매체, 선구적 학자들과 학문 영역 간의 교차교배에 기초하여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는 제2의르네상스가 초래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는 운동의 일부로써 1970년대 중반에 대두된 예술치료라는 것이다. 표현예술치료가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시작된 것은 1974년 S. Mc Niff와 P., Knill 등이 메사츄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Lessly 대학에 표현예술치료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하면서였다.

표현예술치료는 여러 예술을 통합모형으로 사용하며 예술과 심리학, 예술과 치료 및 교육이라는 통합학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Trina는 표현예술치료는 감정적 해소와 통찰에 가장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분노와 공포, 고통스런 기억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 임용자는 "표현예술치료란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기 위하여 복합모형의 예술과정들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예술과 심리치료를 통합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이러한 예술치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전문적 영역은 더 인간적이게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예술의 문턱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간이 물질화, 기계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예술이 인간을 위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유적 힘도 함께 고찰하게 된다.(최부연. 2004).

이러한 관심 속에 현재 한국에도 많은 예술치료학회가 있다. 한국예술치료학회, 한국 예술심리치료학회, 한국통합예술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임상미술치료학회, 한국아동미술치료학회, 한국 심리극연극치료학회, 한국사이코 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한국 독서치료학회 등이다.

본 글은 예술치료의 의미와 치료효과를 살펴보고 제주지역에 예술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예술치료의 의미와 가치

1. 미술치료

미술을 치료에 사용하는 이유는 미술이 언어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무의식이 그림에 투사됨으로써 언어적 표현이 지니는 검열기능이 약화되어 치료과정이 촉진되고, 그림의 영속성 때문에 내용이 망각에 의해 소실되지 않고, 내담자가 그 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전이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 내담자의 통찰에 미술작품이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 Ulman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영어의 'art therapy'가 미술치료, 예술치료, 예술요 법, 회화요법 등으로 변역되고 있다.

Namburg는 정신분석지향적 미술치료의 장점을 말보다는 그림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고 그려진 그림에 대해 스스로 해석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중시하였다. Kramer는 미술치료의 역할은 해석이 아니고 승화와 통합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치료라고 보았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의 사건과 관계되는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미술작품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담자의 자기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볼 수 있고,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마음을다치지 않고 사람의 방어기제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 아동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미술활동을 통해 순간순간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가령 극도로 방어하고 있을 때 인간은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거나 선만 그어댄다든지, 혹은 똑 같은 것만 계속 그리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인간이 지니고있는 대인관계나 개인 내적 문제를 개념화하고 진단하는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미술작품을 통해 상담의 진보를 파악하고 상담의 종결을 결정하기도 한다.

미술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 적대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격적인 사람 중에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회적으로 허락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상담자는 미술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해소하면서 정화를 경험하게 해준다. 예를들어, 화가 나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점토를 세게 두드리거나 던지고 폭발하는 화산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린 후 그 위에 줄을 긋는 작업을통해 자신의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다. 미술치료기법은 많은 상황과 수많은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수술 전에 나타나는 불안, 악몽, 성폭행, 죽음과 죽는 것에 관한 문제들이 치료로 해결된 사례들이다.

미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과 감각을 사용하도록 한다. 미술활동에 앞서 먼저 사고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여러 감각을 통합시켜 그림이나 조각 등 여러 가지 미술작품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활동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개인적인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내담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성장한다. 미술재료의 사용은 기술습득을 강조하고 재능개발을 장려할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저절로 완전한 성과로써 자신감을 높혀준다. 사실, 미술치료에서 창조적 과정의 출현은 내담자, 특히 아동에게 응집적이고 강력한 자기의 표현이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2. 음악치료

'음악치료의 아버지'로 알려진 Gaston은 음악은 인간행동의 한 형태로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자나 환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을 획득하게 하며, 그 전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음악은 신체적 활동을 야기하고 사람에게 상징성과 만족감을 주고 환경과 접촉하게 하며 켜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정을 표출시켜 주며 기억을 자극시키고 내외적 동기가 되며 개인을 그룹으로 통합시키며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치료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Gaston은 음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을 주로 연구하였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는 음악을 통한 '치료자와 환자', 그리고 환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관계의 확립 내지는 재확립을 강조하였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자아성찰을 통한 자긍심의 증진'을 강조하였다. 신체생리적 관점에서는 '음악이 에너지와 질서를 가져오는 리듬의 특유한 능력이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3. 문학치료

고대그리스의 도시인 테베의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책이 의사소통이나 교육, 치료 등을 통하여 생활을 질적으로 더 풍부 하게 해 준다고 생각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후로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자 화된 단어로부터 영감과 안식을 위한 "침묵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학이 지닌 감동의 힘이란 문학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력에 의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대한 작품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다."라고 말한 Goethe의 말은 드킨시가 말한 문학이 지닌 힘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학적 힘, 즉 감동의 힘은 쾌락을 주는데, 이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킨다. 카타르시는 순화되고 정제된 순수한 것으로 갈등의 해소요. 욕구의 실현이다.

문학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의사전달 과정을 돕는다. 의사전달과정을 돕는다는 것은 의사전달이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연결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인 경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심리적 충격이 강한 경우에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아동의 감정표현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치료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자연스럽게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자신의 내면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내담자는 자기가 읽은 문학작품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동의 가치관과 태도는 각 성장 단계에서 독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변화하기까지 한다.(김춘경, 2004).

4. 사이코드라마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를 '극적 방법을 통하여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개인의 역사적 사건들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일상연 극과정에서는 흔히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사건들을 행위를 통해 탐구한다. 즉, 말해지지 않는 생각들, 이곳에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타인이 느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판타지를 묘사하는 것, 미래의 가능성들을 그려보는 일, 그리고 인간 경험현상이라고 하는 많은 다양한 측면들이 그것이다.

사이코드라마는 1921년, 자콥 레비 모레노(Jacob Levy Moerno, M.D. 1889~1974)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이코드라마는 모레노가 상호작용적인 집단역동에 대한 통찰력과 창조성의 철학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통합시켜 만들어낸 하나의 접근방식으로서,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지고 세분화되었다. 이 방법은 정서적 갈등의 명료화, 인간의 잠재력 계발, 자발성의 회복 등에 적용시킬 수 있다. 개인은 지나치게 지식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도외시 해 온 여러 측면의 인간 경험들 즉, 창조성, 자발성, 연극, 유머, 유희, 의식, 춤, 신체적 접촉, 환상, 음악,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여러 확장된 역할들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된다. 기분, 감각, 상상의 경험적 세계를 메마른 우리존재 속으로 통합시킨다.

따라서 사이코드라마는 우리들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자발성과 창조성을 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일상적인 현실 벽의 두께를 밀어 올리고 내면의 진실들을 들어내고 씻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정신세계를 확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코드라마의 구성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첫째, 워밍업은 주인공이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작업 단계, 혹은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을 높이고 누구나기꺼이 행위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드라마화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자발성을 갖도록 촉진시키는 단계 혹은 방법이며, 둘째, 행위는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 연기할 장면을 무대 위에 올려놓아야 할 단계이다. 셋째 나누기 단계로서 집단원들이 행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개방하고 나누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최헌진, 1997).

5.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을 구성하여 성서의 이야기를 재행위화하는 것이다. 이 집단원들은 성서적 전통을 그동안 정통적으로 배워오던 것으로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재미있고, 영적이고, 연극적인 접근방법이다. 참가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동일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서의 이야기들이 살아 있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도록, 집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자가 즉흥적인 행위화를 유도하게 된다. 성서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기도 한다. 예술, 치료, 종교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비블리오드라마 기법은 이미 유럽에서(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 주일학 교 교사, 지도자들 사이에 시행되어져 왔고 오늘날에는 청소년교육, 종교 교육, 교 리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랜 미드라쉬 전통 위에 비블리오드라마 워크숍이 활발하다.

왜 비블리오드라마를 하는가? 사실 성서가 일반사람들에게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자기 성장과 방향을 얻기 위해 성서를 찾아 읽는 사람이줄어들고 있다. 성서를 자기의 영혼의 창문이자 거울로 보고 있지 않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성서의 인물들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서 속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성서는 "불로 써진" 글이라고 한다. 성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상상을 통해 불처럼 살아날 수 있다. 누군가 성서를 "신비스럽고도 성스러운 도시"라고 비유하 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문; 학 자, 역사가들이 들어가는 마음의 문; 아이들, 개심자들이 들어가는 사랑의 문; 시인, 이야기꾼들이 들어가는 미드라쉬의 문; 그 옆에는 넓은 무대에서 놀이하며 들어가도록 해놓은 비블리오드라마 문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블리오드라마의 원리와 기법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도서, 동화, 설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6. 사회극(sicodrama)

모레노는 역할을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요소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요소로 나누었고 이러한 두 가지요소를 행위화하는 방법으로 사이코드라마와 사회극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이코드라마는 사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사회극은 사회적역할과 그 역할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사회극은 집단 간의 관계, 집단 이데올로기를 취급하는 심도 있는 행위 양식(action method)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적 치료방법,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드라마, 집단 내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적 감정을 탐구하는 역할놀이방법 등으로 정의되어져왔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사회극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 사회적 역할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문제들을 행위화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시켜나가는 집단행위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레노는 사회극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실연하면서 서로 다른 집단의 대표들끼리 서로 역할을 교대함으로써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평화를 얻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모레노 이후 사회극은 많은 사이코드라마티스트들에 의해 그 영역이 넓혀졌으며 현재는 교육 현장, 심리치료 현장, 직장, 연극 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되고 있다.

사회극에서는 사이코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서, 인지, 신체 모두를 다룬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화를 일으키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통찰을 일으키고, 신체 적인 측면에서 역할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화, 통찰, 역 할훈련은 한가지만으로 집단원 모두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행동 변화를 위해선 한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세 가지 목표 모두를 사회극 과정에서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디렉터는 워밍업을 하면서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고, 과정 중에 집단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Ⅲ. 예술치료의 효과-드라마치료 사례 중심으로

1. 비블리오드라마

1) 프로그램 일시

1차 2008년 11월 3일(토), 2차 11월 17일(토), 3차 11월 24일(토) 10:00-18:00

2) 프로그램 대상

20대~50대 일반인, 주로 여성 11월 3일 10명, 11월 17일 9명, 11월 24일 8명 참석

3) 프로그램 효과

- 하늘 : 신체적으로 많이 유연해지고 자유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 호수 : 나와 다른 삶을 경험해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 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아픈 상처들을 되새겨 보는 것을 보면서 비블리오드라마가 심리적으로 치료되는 면이나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시 보상받는 측면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 바람 :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낌, 울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음, 머리가 징징 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상쾌했음,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음.
- · 구름 : 얼굴표정이 펴졌다.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인지 예전보다 많이 웃고 있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아직도 주위사람들 눈을 조금 의식하지만 그보다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보여주려

고 노력하고 있다.

- · 눈 : 몸 전체가 개운하고 활기가 생긴다. 두통이 많이 없어졌고 내 몸에 대한 컴플랙스가 많이 줄어서 즐거우며 내 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를 이전보다 더 자주 생각한다.
- · 해 :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행동이 통합되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이 자신에 대해 그 느낌을 수용하고 애도 할 수 있다는 것. 다 양한 각도로 삶을 보는 관점이 생겨 자신의 관점공유가 넓어지는 것 등.
- 바다 : 몸에 기운이 났고 마음이 편안해 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짐. 매사에 꼬여 있던 생각들을 바르게 볼 수 있었다.
- · 우주 : 경직된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대인관계에서 나 중심적인 태도를 깨고, 상대방을 인식하고 솔직한 표현을 함으로써 나 역시 상대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좋 았다.
- 별 : 나 자신의 트라우마 해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 · 산 :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와 비슷한 나의 경험이나 아픔을 떠올리며 치유할 수 있다는 것.
- · 달 : 저도 나름 비포장도를 인생을 살아 왔다고 생각해왔는데 저보다 엄청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만하면 괜찮게 살아왔구나 하는 안심이되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나처럼 비슷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사람들을 참으로 만난 것 같아서 반가웠다.

2. 사이코드라마 효과

1) 프로그램 일시

2009년 1월 2일(금)~3일(일) 10:00-18:00

2) 프로그램 대상

20~50대 가정폭력피해자 집단 10명

3) 프로그램 효과

- A: 내가 주인공이 되어 생각해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타인의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나의 마음도 털어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많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 B: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왔다. 우리들의 과거 중에서 커다란 사건들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생각 즉, 정서와 사고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C : 주인공이 표출해내는 내면의 세계가 나와 동일시되면 동질감을 느끼고 , 하나가 되어 같이 울었다. 주인공은 용기 있고 나는 선뜻 나설 용기가 없어서 한편으로 주인공의 용기가 부러웠다.
- D :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느꼈다.
- E: 나도 과거에 내 모습들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겠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지만 홀로 선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외롭다는 마음이다.
- F : 다들 나하고 비슷한 것들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꼈고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 G: 한번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H: 그 극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무섭고 두렵고 슬펐다. 또 나의 경우를 빗대 어 보며 생각하였다. 또 감정 표출할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함께 울었다.
- I: 내가 주인공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고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들었다. 내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인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 J : 어떻게 저렇게 시원하게 토할 수 있을까 싶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다양한 예술치료 형식, 예술치료의 의미와 가치, 드라마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예술치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대상자에게 보급되어 정신의 확장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한국의 예술치료 전문가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학회에서 일련의 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예술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는 예술치료관련 학회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예술치료 관련 학과도 없다. 그래서 예술치료전문가가 되려면 타 지역에서 대학원을 나오거나 타 지역에 있는 학회에 등록하고 매번 교육과정을 받기 위해 서울이나 타 도시로 나가야 한다. 제주지역 여건상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또는 관련학과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모델을 소개하자면제주대학교 내 원예치료과정이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제주대학교가 연계하여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원예치료학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저 비용으로 매년 60~70여 명 씩 이 과정을 수료하여 원예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원예치료를 하고 있다.

예술치료분야도 제주에서 저 비용으로 전문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여 예술인이든 일반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예술치료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예술치료기관 설립이다. 예술치료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이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에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자가 대부분이고 예술치료전문가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클라이언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많은 비용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예술치료기관 설립하여 예술치료전문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저비용으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술치료 프로그램 보급이다.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 등에서 예술치료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춘경, 『아동상담』, 학지사, 2004.

최헌진, 『사이코드라마』, 학지사, 1997.

최부언, 「아내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체부분 은유기법 중심의 표현예술치료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제주지역 장애문화예술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고 운 산 (한국화가)

----〈차 례〉-

- I . 들어가며
- Ⅱ. 장애란 무엇인가?
- Ⅲ. 장애와 예술
 - 1. 예술가의 정의
 - 2. 장애인 예술
 - 3. 장애인 예술의 종류
- Ⅳ.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
 - 1. 대한민국 헌법
 - 2. 장애인 복지법
 -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4. 장애인 인권헌장
- V.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
- Ⅵ.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방안
- Ⅷ. 결론
-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제주지역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28,393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들은 장애복지에 대한 정책은 인식하면서도 법적인 제도나 제약은 미비한 상태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나타날수 있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장애(손상 혹은 기능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 즉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신비에 차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장애인들도 양파처럼 까고 또 까도 세상의 신비가 끝이 없는 자신의 세상을 창작 하고 싶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이치 속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그려보고 그것을 만져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다르다. 장애와 비장애 인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사회가 만들어내는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장애인들과 장애예술인들은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지원방안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 및 이에 상응하는 법과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지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라도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위한 경제 적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애인 예술창작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Ⅱ.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이해는 육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손상(impairment)의 개념이다. 손상이란 신체적, 정신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이나 비정상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신체적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④ "정신적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의학적 관점의 장애 개념은 장애를 장애인의 보편적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를 개별적인 진단적 범주로 취급하고 있다.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신적, 정서적 특성의 상실로서 손상의 개념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포함된다. 첫째, 해부학적, 생리적, 정신적 혹은 정서적 일탈을 가져오는 모든 병리 조건이다. 둘째, 병리 상태의 통제 혹은 제거 이후에 남은 부분적 상실이나 비정상이다. 셋째, 병리와 결합하지 않은, 즉 선천적인 비정상성(abnormality)이다. 이러한 의학적 정의는 환자는 그의 자율성을 전문적 지시에 맡기고 모든 노력을 치료라는 목적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병의 역할(sick role)" 개념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16)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의 정의는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나 종류에 관련된 건강상의 한계를 강조하는 기능장애(disability)의 개념이다. 기능장애는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역할을 제한하거나 능력을 저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장애(disability)로서 장애의 개념 규정은 엄격한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의 권리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의 보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점점 열악해 가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¹⁶⁾ 이곤수, 『장애인 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2000. p.22

Ⅲ. 장애와 예술

1. 예술가의 정의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며 우리는 감탄을 하고, 감성적, 정서적인 평화를 얻는다. 예술! 예술이라는 것은 표현된 어떠한 형상이나 행위를 보고 바라보는 관객들이나, 기관, 평론가들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술가에 대한 정의 역시 나라혹은 기관마다 다르겠다. 우리나라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예술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을 의미하며, 음악, 문학, 회화, 연극, 영화 따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예술인은 위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80년에 유네스코가 권장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¹⁷⁾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예술가의 활동과 지위를 인정한 정의로 가장 신뢰성 있게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네스코가 내린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정의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한사회나 국가 단위의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회나 국가의 이념이나 정체성 등과 결부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17) *}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예술인 :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고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예술가의 지위 :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예술가에게 주어 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의 의미"

2. 장애인 예술

장애인 예술18)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은 그 표현적인 면에서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이라고 해서장애인 예술로 분류된다고 하는 점은 편향적 시각이다. 루이 암스트롱, 베토벤, 고흐 등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다. 위의 예술가들을 생각하면 장애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라는 점을 먼저 떠올린다. 즉, 장애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열었을 때 언론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찾아오고,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장애를 극복한 인물, 즉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주요 관심기사 거리이다.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동정적으로 사회가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장애를 숨기게 되고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한다. 특히, 장애예술이라는 정의의 논란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다.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예술작업을 장애인 예술이라는 용어로 구분 지어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19).

영국예술위원회에서는 장애예술, 예술과 장애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Disability arts has been defined as : work produced by disabled people, reflecting their cultural, personal, and or political experience of disability, or work produced within a disability-specific arts setting.²⁰⁾
- Arts and disability is more generally defined as: the process of supporting disable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arts.²¹⁾²²⁾

또한 최근 사회문화 복지의 신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역할이 강조

¹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¹⁹⁾ 장애인 예술가와의 간담회(참석자 김충현, 고정욱, 방귀희, 김미현), 2007, 12, 김홍열, 장애인문학의 위상과 발전방향, 솟대문학 창간호

²⁰⁾ 장애예술 : 장애인의 문화와 개성, 장애의 정치적 체험, 장애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예술 내부에서 생산된 작업 등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서 생산된 예술작품.

²¹⁾ 예술과 장애 : 예술로의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주는 과정

²²⁾ Arts Council England, Disability access: A good practice guide for the arts, 2005, p. 39.(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 15. 재인용).

되어, 장애인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활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장애인 예술인의 정의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예술의 종류

1) 장애인 음악

장애인 음악은 장애인들이 행하는 음악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는 인기 듀오 클론의 강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중음악가수이다. 그 외로 1970년대 활동하던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 등이 있다. 장애인 음악가중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을 명성을 얻고 있는 최승원, 두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회아도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청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도 피아노 연주를 많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명창 최준을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손석민 등 발달장애 음악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2) 장애인 문학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1990년 12월 7일 창립되면서부터 장애인 문학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문학'이라는 용어는 편의적으로 쓰여왔던 정의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문학은 장애인이 주체가되어 행하는 문학 활동과 장애를 소재나 주제로 한 문학을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²³⁾ 현재까지 장애인 문학의 정의는 장애인 가운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쓰며 발표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인 문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문학이라면 모름지기 장애인의 문제가 작품의 특수한 가치관으로 반영되어 형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의 문제를 자신의 세계관에 대입하여 철저히 장애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가진 장애인을 장애인 문인으로 분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²³⁾ 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 18.

3) 장애인 미술

한국화의 거장 운보 김기창 화백처럼 장애가 있으면서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많다. 장애인 미술은 장애가 있는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를 비롯하여 구족화가 등이 있다. 구족화가는 그림을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에 따라 구필화가나 족필화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술 작품의 주제를 장애인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미술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문학에 대한 정의보다는 덜 논쟁적이다.

그 외에도 영화, 연극, 무용 등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장애인을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다. '말아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강초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이다. 강초원은 겉보기에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것 하나 없다. 얼룩말과 초코파이를 좋아하며 달리는 것을 즐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직접 영화의 주인공은 연기를 하지 않지만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영화, 연극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또한 장애인 예술 분야 중의 하나이다. 또한 휠체어 댄서 김용우, 청각장애인 무용수 발레리나 강진희 등이 있다.

Ⅳ.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

1.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제3조)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로

(제4조)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년 12월 제정되고, 2008년 2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까지 지원할 수있는 종합적 지원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서살펴보면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평등권을 명시하였고, 제24조(각종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단체에서 장애인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4.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다. 장애인은 문화 · 예술 ·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V.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책 방향은 '제주도의 특수성 반영하고 전통적 가족복지 기능의 강화는 물론 개발과 복지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주거, 보건, 교육, 고용 등 5대 기본생활의 100%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자활기반 확충과 도민의 다양한 사회적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사회통합의 충실화 도모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복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창조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인정받은 것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장애인 예술활동 보장에 대한 제주도적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하다.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대상 집단의 복지실현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는 물질적 조건과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심리적·정신적, 혹은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한다.(현외성 외, 1993: 44).24)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로는 흔히 자유, 평등, 민주주의, 박애, 정의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인간존엄성의 실현 가치라는 기본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N. Furniss & T. Tilton, 1977: 28-29).25) 장애인 정책의 근본이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입각해서 파악된다.26) 즉 외모 및 신체, 정신적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고 각기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장애인의 복지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은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복지정책은 자력으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즉 노인,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적인 욕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²⁷⁾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의 주 수혜자 또한 사회적 약

²⁴⁾ 이곤수, 전게서 p. 54.

²⁵⁾ 이곤수, 상게서 p. 54.

²⁶⁾ 특히 장애인복지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UN이 채택한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제시하는 "완전 참여와 평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참여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자체 및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결정단계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평등이란 사회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에 따른 생활 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배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²⁷⁾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흔히 협의, 광의 그리고 최광의 세 가지로 다루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 견해는 사회복지를 실제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하나 이것을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기타 원조와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광의의 사회복기 개념은 협의의 사회복지 내용 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에 있어서 최저한 수준(national minimum) 혹은 평균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광의의 사회복지개념은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군사, 경찰 등 전 국민의 행복, 사회생활의 안녕과 발전을 지향해서 시행하는 제반 시책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김상규 외, 1993: 5. 재인용). 오늘날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흔히 국민전체의 사회조건을 향상시키고 전체 국민의복지를 제고하는 최광의의 의미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 실제에 있어서는 협의적·잔여적인 방향을 취하여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혜택,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하는

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영역의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타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장애인정책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본적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한다. 따라서 개인적 욕구에 대응한 자선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확대에만 장애인 문제 해결에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무시되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느낀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근본목적은 단순히자선적 성격의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8)

장애인 복지법 제1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에 장애인차별금지와 문화생활 보장 등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예술활동 재정 지원의 의무화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내용이 전국 획일적이며, 단순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시책 개발추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수성의 반영을 통한 21세기를 지향하는 복지모형의 정립과 도민정서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형 복지시책모형개발 등 장기적인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은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평가가 매우 낮고 창작발표의 기회가 부족하며,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문화적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접근 역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²⁸⁾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i) 인권보호정책, ii)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iii) 소득 및 현물지원 프로그램의 세 가지 요소로 장애인정책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욕구의 권리를 제대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과 접근권 보장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인 창작자로 이끌어내어 모든 장애인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술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다만 장애인 예술활동의 진흥 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내 재되어 있는 예술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인 삶의 영위와 이에 따른 자아의 완성에 있다는 것이 전제 가 되어야한다.

VI.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방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여건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복지 공급체계에 대한 유연성 확보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강구해야 한다. 이는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움과 참가를 통해 예술을 즐기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위한 우선 영역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들의 연대와협력을 통해 창작활동의 범주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문화바우처사업', '대학교 장애인 특별전형',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장애예술인/예술단체 기금지원사업', '미술관 및 문화의 집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활동',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등을 매년 개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하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미비한 편이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상적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들은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 장애문화예술인들은 비장애 문화예술인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받을 기회가

낮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은 4년제 대학교 등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되어 미비하나마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장애인은 춘강, 영송학교, 영지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배운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력과 학습의 기회가일반인들보다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로 자신의 전문적인 창작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통로'가 필요하다.

둘,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을 위한 제주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이 있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즉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1~3급의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을 통한 창작 및 활동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발표의 기회도 잡기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모든 장애인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 등급제 등을 활용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고른 기회를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예술에 대한 창작성과 창의성 계발의 '통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 비장애의 구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움과 참가를 통해 예술을 즐기는 사회를 창조하는 복지제도의 목표이기도 하다.

셋,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문예활동지원 5개 사업 중 제주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문화바우처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의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증진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이 지금까지 장애인 접근성에대한 배려의 미비로 그 자신의 장애를 보완하는 인력을 지원받은 것이 장애인의문화적 권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 기대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넷, 장애 예술인이 어떤 협력적 관계 혹은 인적, 물적 지원 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및 평가 작업을 통해 예술을 즐기는 사회를 창조하고, 장애인 자신의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

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교육자, 부모 혹은 예술가들에게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소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사회적 자원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장애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예술창작을 위한 장애인 자신의 자립과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에게 재원과 도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창작 활동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의지의표현이기도 하며, 이와 같은 사회참여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사회통합과 공동체 사회의 이념을 다듬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여섯, 문화소외지역 지역주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술로서 다른 사회일원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곱,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예술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사회구성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능력 발휘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부·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제도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적인 지원정책의 내실 있는 변화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통한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 국가에 있어 장애인 문제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 차원의 정책

적 배려가 요청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영역에 해당된다. 장애인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며, 사회 세력 분포로 볼 때에도 힘이 약한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문화바우처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참여확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바탕으로 일반인과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향유·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활동체계의 강화 속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문화진흥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형사회복지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정수, 『장애인 복지를 위한 행정의 제기능』, 『협동사회의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제기능』, 집문당, 1994.

김중대, 『장애자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박옥희. 권중돈, 『장애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 1994.

이곤수, 『장애인 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2000.

이흥재.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 9-35』, 법무부, 1989.

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전영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4.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도서출판 나남, 1993.

Seong-Gyu Lee, "DISABILIT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7.

대한민국헌법(http://likms.assembly.go.kr/law)

문화예술교육지원법(http://likms.assembly.go.kr/law)

장애인복지법 (http://likms.assembly.go.kr/law)

장애인인권현장(http://cafe.naver.com/dhonestop/133)

제주특별자치도청(http://www.jeju.go.kr)

장애인재활사업 기반 확충

제주특별자치도형사회복지모형

도시재생의 시각에서 본 남수각·관덕정 일대의 문화공간 조성 방안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차 례〉-

- I. 들어가며
- Ⅱ. 제주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외국도시의 거리환경의 시사점
 - 1. 외국도시의 거리환경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2.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구조물 구축의 가치와 의미
- Ⅳ. 남수각·관덕정 일대의 문화공간계획을 위한 도시 재생 접근의 목표와 전략
 - 1. 도시 재생의 목표
 - 2. 남수각 · 관덕정 일대의 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실천구상
- V. 맺으며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도시의 현안 문제가 표면화되어 이에 대한 논 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29)

첫째, 도시는 한정된 장소에 조밀한 인구로 지어진 지리적 실체이다.

둘째, 도시는 조직의 구성체로서 단순한 인구의 집합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관계 및 공간적 활동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상의 장(場)이다.

셋째, 도시에는 조직의 유형을 초월한 역사유산, 가치, 이념 등의 지역요소를 배 제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란? 일정한 공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합체(집적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오래된 집과 좁은 길은 불편하고 오랫동안 이용하여 왔던 물건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크고 높은 건축물과 넓은 도로 개설이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제주의 방언과 음식문화 역시 표준화된 삶의 틀 속에서 서서히 잊혀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국제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지역성이 없는 것은 국제화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때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도시재생, 문화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차없는 거리 등 도시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재생 목적은 살기 좋은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존해 가려는 노력이 표출될 때 도시와 지역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출발은 역사와 문화에 키워드를 두고 계획의 틀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

²⁹⁾ 김인(2006), '한국도시연구의 회고와 전망」, 도시해석, 푸른길, P. 12.

신적 소득의 총칭」300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도시공간 속에 스며들어 갔을 때 진정한 문화경관31)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유럽의 도시에서 느낄 수 있듯이, 도시의 형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인간 활동의 축적과정을 거치며 구축되어지는 것이며 인간 활동의 변 화 흐름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때로는 진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本稿)는 주목받고 있는 구도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남수각과 관덕정 일대에 대하여 도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도시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제주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시는 제주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이며,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제주항이 위치해 있다. 제주시가 제주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추정할수 없으나, 조선시대 때 제주목과 대정현과 정의현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부터 제주도의 중심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31년 제주목이 제주읍으로 승격하였고, 1955년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시로 승격함에 따라, 제주도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는 구도심지역에서 좋은 거주환경을 가진 신도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잡힌 도시개발의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위주의 도시관리의 결과이며 구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신도심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기존 인프라의 취약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상실로 인해 개발의 매력을 잃은지 오래이며 이로 인해 신・증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이 정체되면서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지에 대해서는 기존

³⁰⁾ 민중서림 편집부(1995), 민중국어사전, 민중서림, p. 923.

³¹⁾ 자연경관에 인공을 가하여 이룩한 경작(耕作), 광공업, 교통, 도시 등을 의미한다.

필지의 분할과 도로망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그에 적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역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Ⅲ. 외국도시의 거리환경의 시사점

1. 외국도시의 거리환경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4년에 캐나다 퀘벡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인상적인 점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는 도시공간과 건축물을 통해 도시 나름대로 과거와 현재의 역사, 그리고 기 능성과 상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캐나다 퀘벡시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가득 담고 있었다. 거리의 폭이 좁아 보행하기 힘들어도 많은 관광객들은 상점보다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거리를 거닐며 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은 생동감 그 자체였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거리에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작은 정성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거리의 가게들이 내건 요란스럽지 않고 크지도 않 은 가게 간판도 인상적이었지만, 아름답게 치장한 건축물의 외벽에 어울리는 정성 스럽게 가꾸어 장식한 꽃 상자가 있었고 가로수, 거리의 벤치, 가로등, 그리고 휘 장 등이 고풍스러운 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 다.[그림 1] 많은 관광객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들 아름다운 거리와 건축물을 향해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자연히 제주의 도시와 건축문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 캐나다 퀘벡시의 시가지 모습

세계 속의 관광지, 국제자유도시를 꿈꾸고 있는 제주의 도시와 건축문화 수준은 초라하기만 하다. 공원은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각각의 공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그림 2]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인도는 자동차로 위협받고 그나마 있는 가로수는 볼품없는 모양이고 거의 모든 가로의 인도바닥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며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림 2] 접근성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신제주의 공원 (사진제공: 제민일보 박민호기자)

게다가 거리로 향한 건축물은 외형과 색채에서 거리를 압도하고 크고 작은 간판으로 뒤덮여 거리의 풍경을 즐길 여유조차 없다. 새롭게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제주다운 도시와 건축문화 창출을 기대해 보지만, 단순히 구획된 토지 위에 건축물들이 들어서기만 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성격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복원의 원칙 아래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삶의질적 개선에 초점을 둔 효율적인 내용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거리를 따라 거닐며 아름다운 건축물, 꽃과 가로수, 가로등, 휘장 등으로 장식된거리, 그리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공원으로 연결되어 안심하고 쾌적하게거리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 없다. 공원을 만들 땅이 없으면, 도시 곳곳에 있는 무료 주차장의 일부를 소규모 포켓형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주요 도로에 접한 가게들과 협력하여 꽃과 가로수를 정리하고 휘장을 달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거리의 바닥을 부분적으로 잔디와 블록으

로 조성하는 등 개선방안은 많이 있 을 것이다.

또한 역사성이 강조되는 성읍 민속마을 역시 마을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도로를 없애고 마을의 거리도 아스팔트가 아닌 자연석 블록으로 교체하고[그림 3] 나아가 가게마다개성 있게 가꾼 꽃과 가로수, 벤치, 가로등, 초가집의 현대적인 내부공간과 전통적인 외형을 조화롭게 조성한다면 퀘벡시와 같은 따스한 인간미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 고유의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가로지르는 도로가 마을공간구조의 기능저하뿐만 아니라 풍경을 비문화적으로 만들고 있는 성읍마을의 현황(인용:한국문화유산답사회(한려수도와 제주도, 돌베개, 1998, p. 306.)

2.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구조물 구축의 가치와 의미32)

1)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현황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의 관련분야는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1) 공간디자인(경관, 기반시설, 건축 및 환경)
- (2)시설물디자인(보행 및 운송물, 편의시설, 관리시설, 정보시설, 행정시설)
- (3)이미지디자인(정보매체, 상징매체, 환경연출)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공공디자인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로의 시설물디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보고서나 사업내용의 결과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디자인이란 아름답고 편리함을 창출해 내는 것이며, 여기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공공(公共)의 의미는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정신적, 물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의미, 즉 Social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회적 의미는 대중성을 갖는 것이며 함께 공유(共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가로등, 간판, 휴지통 등 개별적인 시설물의 미적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위치하게 될 공간과의 조화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활행위를 담는 3차원적인 공간의 크기와 깊이, 형태와 색채, 그리고 넓게는 인접한 공간과의 관련성에 의해 사회적 대중성과 문화적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듣고, 즐길 수 있는 시설물과 그러한 생활공간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그림 4-그림 8]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와 오픈스페이스에 설치된 장치물로써의 공공디자인 설치물의 사례이다.

³²⁾ 김태일(2009), 「공공디자인에서의 도시건축의 역할과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이 문화다"의 내용 일부를 인용.



[그림 4] 거북이 모양의 분수대는 비주기적으로 안 개물을 분사함으로서 사람 들의 청각과 시각을 자극 하는 좋은 거리의 장치물 이다.(동경소재, Caretta mall).



[그림 5]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市의 고 유색인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천창을 통한 밝은 공간 을 만들고 여기에 보행자의 마음을 끄는 장동 음악연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단순 한 지하상가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즐기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카나자와시의 AZalea).



[그림 6] 통과 통로의 넓은 광장에 설치된 독특한 연주무대상부와 객석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다.(동경의 록폰기 힐스).



[그림 7] 집합주택단지 내 보행로에 설치된 수변공간 과 조형물은 좋은 거리의 장식물이자 어린이들의 놀 이공간이기도하다.(코오베 의 로코아일랜드).





[그림 8] 쇼핑몰의 전용 보행로에 설치된 모빌조형물은 소리(音)와 움직임(動), 그리고 시각(見)적 자극을 주는 놀이감이자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조형물이다.(코오베의 하버랜드).

이들 공공디자인의 설치물들은 거리의 장식물이기도 하고 사람과 장치물이 일체 가 되어 보고 듣고 즐기는 기능적인 장치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디자인이라는 이름 아래 미술과 산업디자 인 분야의 종사자들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행정안전부의「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은 지역공간의 개선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33)의 성격이 짙다.34) 제품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분야가 주도

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건축의 본질적인 공간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제대로 된 도시건축전문가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장소가 갖는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여 대중의 생활행위를 수용하고 유발 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남수각·관덕정 일대의 문화공간계획을 위한 도시재생 접근의 목표와 전략

1. 도시 재생의 목표

우리나라 모든 도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노후(老朽)화와 공동(空洞)화 현상이다. 이는 확장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삶의 흔적이 축척되어 왔던 도시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었고, 또한 도시중심의 산업집중과 생활권 형성은 농촌지역의 과소(過疎)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주지역 역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중심의 정책은 제주시의 비대화와 아울러 타 지역의 과소(過疎)화로 이어져 제주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쾌적성(Amenity)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³⁵⁾(Identity)과 쾌적성(Amenity)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

³³⁾ 이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가 "지구단 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 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꾀하고, 아울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³⁴⁾ 건축사신문, "공공디자인 건축사 주도로 진행되어야", 2008. 3. 7. 게재기사

시공간 재생의 시작(목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들은 새로운 것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오래된 집과 좁은 길은 불편하고 오랫동안 이용하여 왔던 물건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크고 높은 건축물과 넓은 도로를 개설하고 제주의 방언과 음식문화를 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국제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지역성이 없는 것은 국제화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때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재생 목적은 살기 좋은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존해 가려는 노력이 표출될 때 지역의 더욱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수각·관덕정 일대의 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실천구상

-점(点)적인 개발에서 선(線)적 개발, 면(面)적 개발로의 전환

산지천의 중류 부분에는 신산공원, 자연사박물관, 삼성혈과 같은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하류지역을 따라서는 남수각을 거쳐, 제주의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시장과 칠성통, 그리고 목관아, 관덕정이 있으며 동쪽 건입동에는 일제시대 조성된 측후소와 일본인 거주관사가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지천의 복원된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산지천 끝자락에는 창고와 어시장 등이 남아 있어 번성하였던 산지포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해안을 따라서는 매립지역으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탑동이 있고 탑동 서쪽 끝자락에는 한천, 병문천을 끼고 용연이 자리잡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주요 경관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자원들은 단순히 점(点)적인 존재로 개발되어 있고 자원의 연속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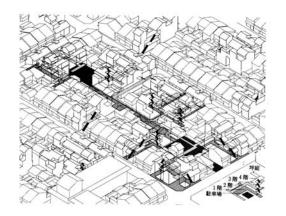
³⁵⁾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을 있는 그래로 표현해 내는 것이며 역사와 문화의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와 아울러 인간의 무리한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된 환경 등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역시 비문화적이고 비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산지천을 중심으로 남수각과 관덕정 주변 일대를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 도시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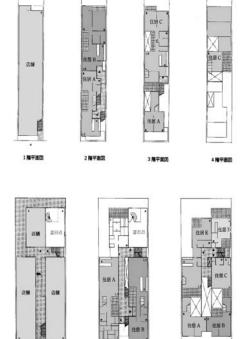
첫째, 상업공간과의 복합화를 이룬 저층고밀화에 의한 주거공간 형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는 것.(지역공간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대)

이러한 사례는 일본 경도(京都)의 전통마을형 집합주택 프로젝트구상안 등이 좋은 사례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몇가지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칙 1: 기존의 블록형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원칙 2: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늘고 기다란 기존의 필지를 합필하는 등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양분하는 등 전통적인 땅의 조건을 유지한다.
- 원칙 3: 주차공간은 일정부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내부는 철저히 보행자 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 원칙 4: 건축물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경도(京都) 전통가옥의 의장(意匠) 요소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그림 9]
- 원칙 5: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저층은 상업공간, 상층은 주거공간으로 하고 주거공간은 젊은 층과 중장연층 등 다양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평면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그림 10]
- 원칙 6: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이외에 적절한 문화공간도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 9] 일본 경도(京都) 전통마을형 집합주택 프로젝트구상안의 외부공간이미지(인용: 巽和夫+町家型集合住宅研究會編(1999), 町家型集合住宅、學芸出版社,p161)



[그림 10] 일본 경도(京都)의 전통마을 형 집합주택 프로젝트구상안(인용:巽和夫+ 町家型集合住宅研究會編(1999), 町家型集 合住宅、學芸出版社,p164)

2 陽平面図

1 陽平微図

둘째, 산지천을 따라 남수각과 관덕정 등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주거지역과 연계하고 자원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에코뮤지엄36)의 실현과 체류공간, 제류시간의 연장),

셋째,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산지천을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작은 공용공간(Small Open Space)를 적극적으로 조성(여기에 적절한 조형물을 설치) 하고 이들 공용공간을 주민 및 관광객의 보행로 및

³⁶⁾ 에코뮤지엄은 독립된 박물관의 한정된 공간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열린공간,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역사와 문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 그 자체를 뮤지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곳에 잠재하는 매력적인 자연이나 문화의 자원, 즉 지역자원(지역의 보물)울 스스로 찾아내 재인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산책로 확보와 함께 연결하여 자원의 연속성 확보.

이 같은 사례는 올림픽유치를 통해 도시활성화를 시도하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며 또한 브라질의 꿈의 도시로 평가받는 꾸리찌바시의 프로젝트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 프로젝트는 보행자 천국의 도시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명 「꽃의 거리」라 불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보행자 거리를 조성한 것이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림11]





[그림 11]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꽃의 거리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꽃의 거리」는 1970년대 초반 시민들의 집회 장소였던 도시 중심부 근처의 거리를 전격 폐쇄하여 조성하면서 형성되었다.

「꽃의 거리」한쪽 끝에 레일을 깔고 폐전차를 가져다 놀이기구를 갖춘 탁아소를 재활용함으로써 쇼핑하러 나온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꽃의 거리」 근처 도로에는 차도를 좁히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굴곡 차선을 건설하여 감속을 유도하고 단주(短柱)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배 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다.

「꽃의 거리」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꾸리찌바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에 의해 매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12시까지 거리미술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넷째 복원된 산지천이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변차로를 자동 차차선의 수와 폭을 줄이고 대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안전성과 접근성 확보),

다섯째, 지역의 매력 포인트를 갖기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부지에 쇼핑 아울렛 혹은 면세점을 유치함으로써 집객력을 높일 것(핵심공간의 확보 및 재래시장과의 보완적 관계 형성).

여섯째,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탑동을 부분적으로나마 바다와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경관 개선),

일곱째, 산지천 및 산지포구가 과거 물류의 거점포구였던 점을 고려하여 포구에 남아 있는 창고 등의 건축물을 소규모 산지포구역사관과 카페 등으로 재활용하되 탑동과 연계하는 것(역사문화의 가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맺으며

현재 노후화와 공동화로 인해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무근성, 칠성통,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뉴타운개발이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제주도 최초의 뉴타운개발방식이라는 점도 있으나 이 지역이 지닌 제주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큰 장소이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다분히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뉴 타운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좀 더 신중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5m에서 100m로 고도규제의 완화로 인한 한라산과 바다의 조망과 주변의 조화로운 풍경이 훼손되는 도심경관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무근성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근성이 존재하였던 제주의 가장 오래된 취락이 형성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제주목관아, 그리고 제주 최초의 초등학교인 북초등학교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의미를 고스란히 지닌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과거 일제 침탈시대에 만들어진 신작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지와 칠성로, 동문시장이 아직 존재하는 상업 1번지인 이곳의 역사와 문화적 자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등

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뉴타운 개발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혼재된 이른바 복합개발이 필요하지만 역사와 문화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공간의 재생, 그리고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재생에 초 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한정되어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왔던 지역사회의 공간 속에서 전시되고 소개되어야 함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이 "에코 뮤지엄"이다. 에코뮤지엄(Eco-Museum)은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자연요소와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마을에는 과거 역사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지천을 둘러싼 지역 역시 제주지역의 주요한 역사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요소와 역사 흔적들이 재발견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요소들을 도시와 건축이라는 생활공간 속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지역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역 정체성의 확보에 대한 철학과 원칙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성과를얻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인 · 박수진 편. 『도시해석』. 푸른길. 2006.

김태일. 『제주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이 문화다" 「세미나 자료집」, 2009.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의 형성과 운영』, 2007.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후출판사. 2001.

유환종 외 역.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1999.

진영환 외 역,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리즈1』, 도시계획의 신조류, 한울아카 데미. 2006.

(사)시민문화회의 외. 『해외문화도시 사례분석』.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한려수도와 제주도, 돌베개, 1998.

巽和夫+町家型集合住宅研究會編, 町家型集合住宅、學芸出版社, 1999.

제주도 내 기초예술 활성화에 대한 제언

강 민 석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차 례〉 -

- I . 서론
- Ⅱ. 본론
 - 1. 예술교육은 기초학문
 - 2. 기초예술의 활성화 방안
- Ⅲ. 결론

참고문헌

I . 서론

언젠가 TV에서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37)이라는 프랑스 항공사진작가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방송의 내용은 150여 개국을 돌며 지구의 모습을 기록해온 얀이 독도와 경주, 남해안 일대 등을 촬영하여 '하늘에서 본 한국'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1970년대 케냐의 마사이 마라 동물보호구역에들어가 사자에 대한 연구로 박사논문을 준비하다가 글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사진에 매력을 느껴 열기구를 조종하면서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찍는 항공사진작가로 전향, 1994년 이후 세계 150개국의 모습을 항공사진에 담아 왔다고한다. 그가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만 말을 잃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낯설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얀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사진을 통해많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어떤 사물이나 세계의 모습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얀의 사진은 말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된다.

왜 한 개인의 예술행위가 갖는 의미를 들춰내는가 하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하면 우리의 생활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술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고양을 깊게 하는데 기여해왔다. 예술의 근원에는 인간 내면의 심미 적, 정신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삶의 형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³⁷⁾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 1946~): 국제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사진작가이다. 그는 동물사진에 전문가이다. 그러나 추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제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그는 헬리콥터와 열기구를 이용한 풍경사진집을 60권 이상 발간했다. 얀 베르트랑의 사진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수시로 실린다. 그의 사진은 정치적 의미와 미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하늘에서 본 한국〉(2008). 〈하늘에서 본 지구〉(2004) 등.



[그림 1] 하늘에서 본 한국,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2008년



[그림 2] 항공 촬영 중인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현대사회는 과거의 기준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분화되었고, 사회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안정되게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가치와 입장에서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이 갖는 의미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런 불명확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과 같은 창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좀 더 안정되고 풍부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유에서다. 얀이 한국 촬영을 마치면서 밝힌 소감 중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의 모습을 보면 편리한 수준까지는 온 것 같은데, 삶의 미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공허한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매우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듯하다. 얀이 말한 그 편리한 사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도 성취해야 할 목표가 산적해 있다. 그 흔한 구호에서 반복되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수치와 통계조건들은 뒤로 하고, 또 다른 조건, '삶의 미적 가치 추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Ⅱ. 본론

1. 예술교육은 기초학문

인간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가 취하는 태도에 따 라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덴마크의 실존철학자 키에르 케고르38)의 말처 럼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자기인식을 확장시켜 삶의 가치 와 의미를 창조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해 왔다. 그래서 삶의 주체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 가느냐 하는 것이다. 압축 성장으로 인해 물질문명에 대한 무한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사회는 최근 개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가 물질적인 풍요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관심이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는 방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귀결점으 로 정신적으로 고양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 부쩍 늘어난 예술 관련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삶의 질적 추구 지수는 가파른 오름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문화를 실용성이나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한다면 진정한 문화강국이 되 기 어렵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격조를 높이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정신적 가 치를 추구하는 예술의 착실한 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가 튼튼한 진정한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문화예술의 순환구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창조적인 교육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사회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교육의 기능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지만, 인간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정서함양도 중시되어야 한다. 즉, 인간

³⁸⁾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Soren Aabye, 1813~1855): 덴마크 종교철학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창시자, 덴마크의 철학자. 그는 대중의 비자주성과 위선적 신앙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신(神)을 탐구하는 종교적 실존의 존재방식을 〈죽음에 이르는 병〉등의 저작을 통해 추구하였다. 저서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철학 단상〉등.

의 삶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이나 창조적 행동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성과 이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며 개발될 때 인간은 조화롭고 균형적인 인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구조는 예술교육이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몇 교과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입시교육은 더욱 강화되어 예술교육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 이상 예술을 교육체계의 보충적 존재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과목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입시를 통해 개인의 인생이 좌우되는 한국의 사회적 기현상이 지속된다면 정서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 예술적 감수성이 체화될수 있는 경험이 전무한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의 성장 동력인 인재 양성은 미래에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 기초가되는 교육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기초학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예술과 교육의 조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청소년기에 창의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풍부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인식에 비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제반여건의 이유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의 예술교육은 성적과 입시를 목적으로 한 목적론적 예술행위로서 예술 고유의 가치와 즐거움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예술교육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균형 잡힌 전인교육이라는 보편적 교육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예술의 활성화 방안

예술의 나라하면 프랑스를 먼저 떠 올린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1968년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시작되어 학교 내 예술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게 된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 교육과의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교육자와 연계되어야 하고,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즉각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훗날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특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이라는 큰 범주 하에 각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의 공조로 기획,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그림 3] Musee de Port-Royal des Champs, 박물관의 예술교육 장면



[그림 4] 정부지원과 기업이 협찬 하는 예술교육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을 잘 보여주는 예로 현대미술지방진흥 재단(FRAC: 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³⁹⁾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지방 단위로 현대미술을 장려, 보급하고 교육하는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은 80년대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반에 반영된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기조로 하여 198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끄 랑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은 미술관, 전시장, 그리고 교육센터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박물관의 기능을 유연하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육 및 전시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문화사업지방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의 활동예산은 국가가 아닌 각 지방에서 기본적으로 충당한다.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은 소장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장품을학교 공간에 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협력하는데, 이때 작품의작가가 직접 학교에 동행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모든 활

³⁹⁾ 현대미술지방진홍재단(FRAC): 문화사업지방국(DRAC: 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의 산하단체. 프락은 현대미술이 수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교육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현대미술 및 문화예술 영역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 1980년대초 각 지방마다 설치된 문화예술기관이다. 프랑스 본토에 22개, 식민지령에 2개, 총 2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 및 국적에 관계없이 전 세계 현대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프락은 어린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품소장, 소장품 전시 및 홍보, 현대미술 창작지원과 함께 프락의 주요 사명 중 하나로 중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원칙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과 학교와의 협력 관계는 문화예술교 육 지원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사들을 현 대미술지방진흥재단에서 채용하여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 욱 공고히 한다. 교사들은 각 지방의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에서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고, 다시 학교 일선으로 복귀, 교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매개자 역할을 한다. 미술가들이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 학생들이 작가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현대미술지방진흥 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40)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의 범주 안에서 출발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은 초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점차적으 로 심의과정들이 간소화되면서 예산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 내면서 문화예술교육 수업 진행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공 예산으로 모든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상대적으로 기업 등 의 사적 지원의 비중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도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 각층에서는 기업 등의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리하면 예술교육은 기초학문으로서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점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문화기관과 학교 간의 인적 교류,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마련하여 기초예술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Ⅲ. 결론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 질적인 예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지역 문화기관 에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이

⁴⁰⁾ 박지은,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아르떼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나 기자재들을 모두 학교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에 따르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문화기관의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 방침과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양한 사회적 소통 경로를 개발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존 문화기관의 입장에서도 교육의 기능을 통해 잠재적인 문화예술 수요의 확대를 지향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기관 간의 경직된 행정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좀 더창의적인 예술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콘텐츠가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있는 요즘, 학교와 문화기관의 협력적인 예술교육은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문화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고시킬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권역에서의 활발한 현실 적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예술의 활성화 방안은 예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

참고문헌

신정원 외, 『현대사회와 예술교육(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총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랑스의 예술교육』, Dayez-burgon, Pascal,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4집, 2001.

박지은,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 아르떼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제주미술 생산성 회복과 생태계 창출을 위한 제언

홍 성 석 (시각예술가/아트인미술문화연구소장)

-----(차 례〉----

- I. 들어가며
- Ⅱ. 왜 지역미술을 말하는가?
 - 1. 문화의 공공성
 - 2. 세계화와 기초예술의 붕괴
 - 3. 문화다양성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 Ⅲ. 관광패턴의 변화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재발견
- Ⅳ. '생산+소비+a' 입체적 미술창작기지 설립을 제안한다.
 - 1. 제주형 복합 미술창작기지의 기본방향
 - 2. 이슈를 선점하라
- V. 맺는말

I. 들어가며

최근 한경면 저지리의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제주현대미술관 개관에 이어 제주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에 터를 잡고 개관을 하였다. 이로써 제주도 내 공립미술관은 서귀포 '기당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에 이어 '제주도립미술관'까지 모두 4곳을 보유하게 되었다.

단순히 공립미술관의 숫자로만 본다면 이제 제주도도 그럴듯한 미술발전의 인프라를 갖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하드웨어적 발전이 제주 지역미술의 발전으로 올곧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인즉 지역미술의 발전은 지역작가들의 창작역량과 미술적 성취에 기반하는 만큼, 제주 지역미술의 비젼을 담아내지 못하는 단순 볼거리 제공 차원의, 이를테면'관광시설'로서의 미술관은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미술계 전반에서 일부 제주 공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최근 개관한 제주의 대표미술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립미술관은 건립논의초기단계에서부터 갖가지 우려와 논란을 낳으며 개관기념전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어 마치 제주미술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듯 착잡한심정이다.

미술관과 지역발전이라는 관계항을 놓고 볼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술관의 규모나 숫자보다 그 그릇에 담긴 소프트웨어적 내용성이 어떻게 지역미술의 생산성을 견인해 낼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그 생산성은 바로 지역의 문화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적어도 제주의 현실을 보면 이처럼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화생산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비단, 미술관과 관련된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너무도 소홀히 인식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떻든 오늘날 제주미술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긍정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핵심요인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첫째, 오로지 '경제논리로 문 화예술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태도'와 둘째, 자기 문화에 대한 경시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작가들에 대한 홀대와 외면' 셋째, 미술계 내부적 문제인 '창작문화의 실종' 등을 들 수 있다.

한 해에 이루어지는 전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크고 작은 전시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고 있으며, 여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미술인 인구, 다양한 기관과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 최근 전국적으로 마치 붐을 타고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는 거리벽화 등의 공공미술 사업이 제주도 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놓고 보면 과히미술의 전성기라고 해도 될 만큼 활발하게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한 꺼풀만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작금의 제주미술계는 암흑 속이다. 지역미술 소비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적지 않은 미술인들이 하나 둘, 창작자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주미술계에 미술인은 있으되 창작자는 쉬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것은 미술계의 전반적인 '창작문화의 실종'으로 이어져 미술인들 스스로 치열한 작가정신을 포기하고 손 쉬운 자기복제를 일삼게 한다. 거기에다 현대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미술인 세계에 서조차 소비 담론만 난무하고 생산 담론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애써 외면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전시는 쉼 없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데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전시를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또한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현장으로 들어간 미술은 치졸한 상화수준의 벽화를 양산하거나 미술인 스스로 미술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단순한 환경미화업자(?)로 머물기를 자처함으로써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만다. 그에 더해 우리 지역사회 전반의 자기문화경시 풍조는 지역작가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때때로 정책적 차원에서조차 외면되기 일쑤이다.

기실, 생산 없는 소비란 허무한 허상과도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부실을 심화시키고 대외 종속적인 문화식민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미술의 생산성 회복을 논하는 이유와 가치,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사회적 기여와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제주미술의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형성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왜 지역미술을 말하는가?

1. 문화의 공공성

문화란 '인간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치체계와 삶의 양식'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45년 유럽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문화가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국가가 예술활동을 포함한 다양한문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법적 보호를 하는 '국가 후견주의' 시대를 열게된다. 달리 말해 국가는 자국민에게 먹고, 자고, 입는 것과 같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요소로 문화예술 생산과 향유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문화공공성'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문화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감성과 의미를 생산하고 소통하며 향유하는 창조적 과정에 대한 범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인식선상에서 창작활동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활동을 넘어선 공동체와의 상호 영향을 기본원리로 하는 동시대적 문화생산 행위로서 공공적 가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풀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행위는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공공적 인식은 여전히 너무도 인색하다. 그러한 토양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영역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창조적 생산성을 잃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제주지역의 상황은 자생력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극단적인 수준이다. 이제 적어도 문화예술 생산부문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체험, 소양교육 등의소비부문에 쏟는 관심만큼이나 문화예술 창작영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더 미루어져서는 안 될 시점이다.

2. 세계화와 기초예술의 붕괴

근래 들어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 국가 간 고전적 벽들은 적어도 경제영역에서는 급격히 그 존재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세계화라는 개념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계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말 자체의 의미로 보면 그럴 듯하지만 삶의 질에 미치는 실제적모습은 기대하는 풍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계화로 거론되는 상징적인 경제체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국가 단위를 넘어 서는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국가 간 관세나 장 애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국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사유 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등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 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자유라는 이름은 애당초, 이름 자체가 갖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넘어 자본과 권력을 확보한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자유가 되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든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사회, 정치, 교육, 보건, 문화 등 일상의 모든 분야로 침투하여 무한경쟁의 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자기개조를 강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는 문화예술도 시장주의에 의해 유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최근 국내적으로도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논리를 문화예술 현장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문화적 영역에 기업적성과를 이룬 CEO들이 진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기업문화가 사회 전반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영인 출신 관장 임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는 결국, 당장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화예술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창작행위는 철저히 사적차원으로 방치된다. 국가 차원이건 지역 차원이건 돈이 되지 않는 경쟁력 없는 자생적 예술문화는 문화 권력화한 외부의 기득권 예술문화에 의해 점령되어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제주의 경우처럼 관광을 위한 지역의 문화산업은 화석화한 과거의

민속 문화를 우려내는 수준에서의 무의미한 자기복제가 진행되면서 그 문화적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엔 건강한 문화생산은 없고 소비만이 존재할 뿐이다.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그동안 제주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관련 현상들은 이같은 예상을 진작부터 뒷받침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예술사에서 의미 있는 제대로 된 예술이 창작단계에서부터 돈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오히려 기초예술은 끊임없이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업성과 권력에 저항해 왔으며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노래하고 비판해 왔다. 어찌 보면 그것이 기초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일진데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기초예술의 근저를 위협하고 창작자들의 생존은 물론, 미학적 생존마저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흔히 오늘날의 세계를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계는 문화영역의 역량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화적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 하나에도 문화적 자원을 공격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저변에는 문화의 힘만이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념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문화예술의 풍부한 미래자원을 만드는 일은 당장 돈되는 영역에 기울이는 관심 이전에, 먼저 챙겨야 할 내일에 대한 전략적 준비이며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당면과제가 된다. 돈 되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1차적 창작단위의 기초예술이 꽃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이지 않던가.

3. 문화다양성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각국의 문화다양성을 국제법으로 보호하자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세계 각국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채택하였다. 본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간 차원의 다양성 장려와 문화다양성 감시기구 설치 및 분쟁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그동안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20조가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통상조약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유보해 왔으나 다른 규범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내부적 검토와 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대응과 비준 동향, 범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필요성

등에 따라 유보 없이 비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본 협약이 비준되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협약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 문화 보호 장치를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보루로 역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은 모든 문화를 윤택하게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세계화 시대의 경제논리에 앞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가치라는 것은 비단 국가단위 문화에서만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 내의 지역 간 문화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답을 먼저 꺼내놓는다면 한 마디로 비극적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 문화자원의 최소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아니 실제 내막은 그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기형적 문화구도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수리적 관점에서 인구대비 투자비율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란 자본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일종의 생태계와도 같다. 자원의 집중은 자연스레 생산과 소비의 집중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력이 되어 대한민국 문화의 표준화를 진행시키게 된다. 말을 바꾸면 대한민국 문화의 획일화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지 오래다. 제주 지역미술의 위기를 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미학적 사상과 이론 담론들은 대부분 서구로부터 수입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그 새로운 담론의 흐름을 얼마만큼 신속 히 차용하느냐에 따라 미학적 수준이 가늠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온 면이 없 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런 태생적 연유로 말미암아 서구 미술에 대한 우리 미술 의 사대성 종속성은 오늘날까지도 우려할 수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미술의 역사도 보다 축소된 형태로 수도권 미술에 대해 종속적 사대적 입장을 취해 왔으며 그것은 획일화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한 지역의 문화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정서,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문화의 획일화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공황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획일화된 수도권 문화로는 대한민국 문화의 건강한 생산성을 담보해 낼 수 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의 세기에 대한민국의 살길은 문화다양성 확보에 있다. 문화다양성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결국 그 해법은 바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생산성을 되찾는 일이다.

Ⅲ. 관광패턴의 변화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재발견

개인적인 소견으로 최근 제주관광에 대한 패턴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주 '올레길 도보여행'을 꼽고 싶다. '올레'란 제주어로 '거리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작은 골목길'을 뜻하는 것으로 '올레 여행'은 오랜 시절 제주인의 호흡이 진득이 스며 있는 제주의 자연과 삶의 흔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몸소 체험하는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언론인 출신 서명숙 씨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도 지속적으로 코스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레 여행은 기존 여행 패턴에서는 이방인에게 쉬이 드러나 보이지 않던 화산섬 속살의 매력에 흠뻑 빠질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선행 여행객들의 소문을 타고 혼자 또는 두서너 명씩 배낭을 메고 며칠씩 걷는 여행객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으며 '올레꾼'이라 불리는 도보 여행객들은 반복하여 제주를 찾아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코스 주변의 민박집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어 대자본에 의해 잠식되던 제주관광의 소득분배 효과도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낳게 한다.

올레 도보여행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따라 제주도는 뒤늦게 예산을 배정하고 코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안내소 설치 및 거리 표지판 등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자라는 우려스러움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행정이 정비에 나서면 올레꾼들의 편의를 앞세워 여느 관광지처럼 반듯(?)하게 정비해 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런 우려는 그동안의 비문화적 정책 추진 사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올레 도보여행이란 가공되지 않은 자연과 훼손되지 않은 토착민의 삶의 흔적을 쫓아 걷는 '느림의 미학'을 전제로 하는 여행이어서 더욱 그렇다.

어떻든 올레 도보여행은 이전의 패키지관광 형태의 경관관광이나 단순 유희적 관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주 섬의 역사와 문화체험의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 다 최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 섬의 지질학적 가치와 다양한 생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올레 여행과 더불어 제주 관광패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관광의 패턴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세계적 관광 트랜드역시 단순 경관성보다는 체험을,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를,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안락과 유희성보다는 도전과 모험성을, 파괴보다는 보호를 외치는 새로운 조류가형성되고 있다. 말을 바꾸면 과거 자연풍경과 문화유적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광이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콘텐츠와 체험중심의 소프트웨어적 관광이 대세를 이룬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 속에서 하드웨어적 관광이나 단순 소프트웨어적 관광만으로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을 생각한다면 기존 자원의 가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창조적 관광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미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자원가치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창조 중심의 관광 전략을 말하며, 필자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형의 지역 문화예술자원에 주목하기를 기대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문화전쟁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박제된 자원이 아닌 재생산 가능한 생명력 있는 미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일견, 관광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하자는 이러한 시각이 앞서 언급된 '문화예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불온한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단순한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닌 순수 창작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의 가치를 높이며지역 정체성을 고양하는, 달리 말해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생산성 그 자체가곧 관광문화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예술계 내적으로는 제주 지역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주의 미래관광자원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화예술과 경제라는 다소 대비되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두 요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문화예술 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역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인식 구조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이지 않은가.

IV. '생산+소비+a' 입체적 미술창작기지 설립을 제안한다.

문화생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초예술분야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주미술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제주의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문화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즉각적인 창작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시점이다.

그렇다면 제주미술 생산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필자는 지역미술의 생산과 소비라는 순환구조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주형 복합 미술창작기지' 설립을 제안하며 그것은 입주지역의 지역재생 수단으로의 활용성은 물론,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문화자원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컬쳐노믹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컬쳐노믹스(Culturenomics)'는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 어로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교수인 피터듀런드(Peter Duelund)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컬쳐노믹스를 사회 곳곳에서 문화마케팅을 넘어 문화를 소재로 부를 만드는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자에 서울시의 '컬쳐노믹스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시의 컬쳐노믹스 전략이란 서울시가 2008년에 선포한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도시경 쟁력을 높이는 발전전략'으로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능력을 증폭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본 정책의 일환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컬쳐노믹스 전략은 문화전쟁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제주 관광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일단 본고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제주형 창작기지 설립을 위한 논의의 촉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의 대략적인 방향만 피

력하는 것으로 하겠다. 앞으로 실질적인 설립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인다면 보다 의미 있고 효용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제주형 복합 미술창작기지의 기본방향

앞서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 수년 전부터 창작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되면서 창작스튜디오의 조성이 새로운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본고에서 말 하고자 하는 미술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복합적 순환 시스템으로서의 미술창작기지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지만, 창작활성화를 위한 공적지원제도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 고민거리는 작업공간에 있다. 현대에 올수록 점차 작업이 대형화되어가는 추세인 점을 볼 때, 가뜩이나 생활고 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작가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사 실상 어렵다. 그렇다 보니 작업공간이 작업에 미치는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작가들에게 제 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사립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입주 작가들로부터 작 품을 기증받아 손쉽게 수준 높은 작품을 소장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 한, 좀 더 발전한 형태로 창작공간과 더불어 전시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창작과 소통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공간을 지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 인데다 입지조건이나 운영인력의 비전문성, 기획능력의 부족, 기타 사회적 제반 요 건들과의 연계성이나 문화적 활용도가 낮아 미술 전반의 실질적인 창작활성화는 물론, 예술적 거점 마련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듯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가시적 성과물인 시설투자 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적인 전문화된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기능적으로 다원화되고 확대된 자체적 수익구조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복합적 형태의 창작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먼저 파악하고 설립규모와 입지에서부터 창작기지를 이루는 적절한 기능구조와 역할, 제반 요소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이를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전반에 관한 철저한 검토와 기획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체 수익구조를 통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 창출의 적절성과 타당성, 운영 시스템의생산성과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더욱 중요하다.

참고로,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은 기존 용도폐기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예컨대 구 제 주대학병원 건물이나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전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시 청사, 도심 권 인근의 폐교시설 등이 좋은 대상이다. 특히 구 제주대학병원 건물은 도심에 위 치해 있으면서 인근 지역이 현재 급격히 공동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창작 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문화생산지구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대단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덧붙여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다.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역미술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진정성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의 생산과 소비, 재투자로 이어지는 일종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주요 기능적 모형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전략이나 기술 등은 앞으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면 다각 적인 검토와 논의를 모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 집단 창작스튜디오로서의 기능
- 전시 및 작품판매 공간으로서의 기능
- 지역미술특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개발
 - 문화예술 이벤트 개발 등
- 지역미술 유통 시스템 개발 및 시장개척
 - 미술품 경매, 미술은행제도 도입 등
-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 판매
- 국제문화교류시설로서의 기능
 -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 문화예술 교류 및 체험의 장
 - 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2. 이슈를 선점하라.

본디 어떤 분야에서든 먼저 특정의 이미지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더더욱 그 파급효과를 높인다. 따라서 이전에 없던 '지역미술의 반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격적 형태의 예술창작 플렛폼을 여타 지역에 선행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로부터 시작된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예술생산기지에 대한 설립 담론이 외부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외부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큼 이슈화하려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성이 충족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공간성 자체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런 기반 위에 진정성과 혁신성이 그 속을 채울 때 제주미술의 명실상부한 창작기지로서 창작과 소비가 순환되는 자생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부가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말

관광을 최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는 제주에서 관광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예술 생산기지를 말할 때, 그것이 문화산업이냐 관광산업이냐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 해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화적 가치를 중시할 것이냐 경제적 가치를 중시할 것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생산성 자체가 바로 가장 큰 관광자원이라는 신념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것처럼 문화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산업을 생각할 때 야기되는 모순점들이 존재하는데 이점은 지역미술의 생태계를 지역작가들 스스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써 결코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며 문화예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자는 논리로 단순화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예술의 창작활성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 중 하나도 역시 경제적 동기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확대된 창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리

라 여겨진다.

따라서 행정 당국은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미술인들 스스로의 자생적인 생태계 창출 노력에 더해 문화산업 나아가 관광산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적 위치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정책의 대부분이 문화적 인식과 전략적접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과중심의 하드웨어 확충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할때 여기에서 제시하는 창작기지는 소프트웨어적 내용성이 핵심이며 기반시설은 그내용성을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확고한 인식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사회문화프로그램 개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

좌 혜 경 (해녀박물관)

----〈차 례〉-

- I . 서언
- Ⅱ.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조성
- Ⅲ.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례
 - 1. 해녀박물관 개관
 - 2. 해녀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방안 모색
 - 3.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해녀문화유산 전시홍보 및 축제 한마당
 - 5. 공연을 통한 국내 · 외 문화교류사업
 - 6. 문화시설을 이용한 워크샵 및 영화상영회
- IV. 과제 및 향후 발전방안 참고문헌

I . 서언

제주사람들의 전통문화 속에 고난과 역경의 이미지로 남아있던 제주섬의 자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자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인정된 이후 그 기쁨은 배 가 되었다.

문화유산은 자연적 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진 문화현상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문화유산 속에는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민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지역성과 전통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많은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는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제주의 자연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경사도 그 결과였다.

한편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자료 수집 등 행정 당국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박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전통문화연구소, 4·3연구소 등 지역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지역 전통문화의 홍보 및 교육, 사회, 문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사회문화 전승교육·공연 프로그램은 성인, 학생, 학교, 지역주민을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전시와 찾아가는 전시회, 전문 큐레이터 혹은 에듀케이터, 예술강사 등 전문 부서 프로그램 기획 담 당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지탐사, 문화시설을 활용한 워크숍, 연수 등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역협력 지원사업과 학교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향유되고 전승되던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를 대표하고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해녀들의 생업문화 소산인 해녀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승보존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모색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Ⅱ.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 조성

제주 해녀들은 '제주여성', '제주의 어머니'로 상징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노동을 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반농반어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초인적 기량을 지닌 나잠업자로 평가되는 제주해녀들은 일본 아마(海女)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드문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 각처와 일본 등지로 출가물질 가서도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바다어장을 일구면서 돈을 벌어 제주 경제의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 1932년에는 구좌, 성산, 우도의 해녀들이 일제의 생존권 수탈에 맞서서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을 거행하여 자존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녀일이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급격히 나타나는 자원고갈 등으로 물질 생업과 전승 문화유산이 급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975년경 1만 5천 명되던 해녀 수가 현재는 5,200여 명으로, 그 수가 줄었고, 연령층도 대부분 60대에서 70대가 전체 76%를 차지하고 50대가 22.4%, 40대 미만의 해녀는 5%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해녀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녀의 생업과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특히 해녀박물관이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논의돼왔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보호협약(2003년 유네스코 3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일명 ICH 협약)은 우선 제주해녀무형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시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보전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나가며, 이를 제주문화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다양한 연구와 포괄적인 보전관리 정책의 도입 및 제주도민이 일치된 보호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1)

유네스코 ICH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의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⁴¹⁾ 허권,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가능성", 제민일보사, 2006.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

곧 해녀 무형문화유산으로는 기술, 도구, 표현, 공간, 관습 등에서 목록의 범주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이 생겨나게 된 근거가 되는 생업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등도 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국내 문화재법에서 해녀관련 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하여 전승 보존이 가능하다. 현재 해녀문화와 관련해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해녀노래(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이 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 소장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민속자료 10호(2008.11.03)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보존이 시급하고 용도면에서 그 기능이 뛰어나서 민속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평가다. 지정된 종목은 물소중기(소중이), 물적삼, 물체(물치기), 수건 및 까부리, 테왁망사리, 족쉐눈(쌍안경), 쉐눈(왕눈, 단안경), 눈곽, 빗창, 종개호미, 호맹이(까꾸리), 작살, 성게채, 성게칼, 질구덕 등이다.

이외에도 기술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범주들은 1) 어떠한 기계 장치 없이 물속에서 작업하는 친환경적인 여성작업의 특성을 지니는 물질(잠수질)의 기능보유자로 제주도 전역, 어촌계에 등록된 현재 작업에 임하는 해녀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어촌계 내에서 물질 작업 전수생을 선정하여 선배 해녀에게서 물질 작업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며, 바다어장 자원 관리에 주력해서 지속적으로 해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무속신앙은 해녀들이 조업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무속의례다. 제주도 내에서 행해지는 영등굿, 잠수굿, 요 왕맞이 등의 의례도 지정해서 보존한다. 해녀들의 예능으로서 해녀놀이, 해녀옷 제작 기능도 전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해녀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불턱', '해신당'을 보존하고 '바다 작업장'을 민속자료로 지정해서 자원관리나 어장관리가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한다.

Ⅲ.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례

1. 해녀박물관 개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섬 지역의 고유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후세들에게 교육 전수하기 위해 해녀박물관을 개관했다.

2000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2003년 12월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4,000평 방 규모의 해녀박물관 건립 공사에 들어간 후 5년의 노력 끝에 2006년 6월 9일 비로소 첫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현재 해녀들의 생업과 함께 칠머리당 영등굿과 같은 무속신앙, 해녀노래 그리고 공동체 문화의 상징인 불턱과 사회조직, 나잠수 작업, 물질, 풍향과 관련된 언어 등 해녀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전승이 끊길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녀박물 관 개관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고 그 상징성도 크다고 하겠다.

해녀박물관 건물의 모습은 제주의 오름과 해녀들의 테왁을 상징했다.

제1전시실에서는 불턱, 도대불, 방사탑, 원담을 품은 제주어촌의 모습과 해녀의 집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어촌의 세시일상 등을 배경으로 해녀의 탄생, 성장과정, 결혼, 신앙, 농사 등에 관한 유물들을 전시했다. 해산물을 이용한 소라구이, 전복 죽, 성게국 등 다양한 음식 모형과 의식주 등의 생활도구를 전시, 해녀의 삶을 표현했다.

해녀의 일터인 제2전시실에서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옷을 갈아입고 언 몸을 녹이며 서로 정보를 나누는 불턱의 원형을 복원하고, 뱃물질, 빗창, 테왁망사리와 같은 작업도구와 해녀옷 '소중기'를 입은 해녀상이 전시되어 있다. 또 문헌에 나타난해녀 및 해녀항일에 관한 역사기사와 일제강점기 야학당의 모습 및 해녀항일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들도 살필 수 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제3전시실은 해녀의 작업장이면서도 해녀 남편인 어부들의 생생한 삶과 어로문화를 전시한 공간이다. 테우를 이용한 자리잡이, 멸치잡이, 전국에서 유일한 돌 염전이 모형으로 전시되고, 해녀문화에 관한 여러 생업담 및 제주어로 된 속담은 해녀들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바다물질 작업과 바닷속 체험을 통해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해녀 체험관을 마련했다.

해녀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해녀문화를 세계에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관이 될 해녀 박물관은 명실공히 해녀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해녀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업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해녀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방안 모색

1) 해녀문화 및 유물조사

해녀유물이나 구전문화는 소멸의 위기에 있으므로 시급히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녀와 해양과 관련된 민간에 남아있는 유물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수집된 자료는 4,000여 점에 이르고 있으며 더불어 제주도 내에 남아있는 해녀들의 삶의 현장과 문화현상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

해신당, 불턱과 같은 해녀민속자료와 함께 전승되고 있는 해녀노래, 무속의례와 같은 무형의 유산과 관련한 소재지 및 기능자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전승보 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직접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해녀의 역사적 출처인 고문헌이나 해녀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나 신문기사를 정리하여 문헌자료를 집대성하고, 제주도 내 100개 어촌계의 생업문화를 정리하고 육지부 혹은 일본 출가나 독도관련 해녀 생애담 조사 등으로 근대기의 제주여성의 생활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해녀 및 해양문화조사

기간	연구주제	연구성과
2006.6. ~12.	해녀항일관련 기사 및 해녀조사	- 해녀 역사, 기사 자료집 발간 (2009, 하반기 예정)
2006.7. ~2008.6.	제주해녀문화탐방 (제주도 내 100개 어촌계 대상)	-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발간 (2009.2.2) -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조사 보고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2008.6.20)
2008. 3.	영등굿 조사	- 최영장군제, 하도리 영등제, 제주시 칠머리당 영등굿 송별제, 김녕리 잠수굿 영상활영
2009.5.	독도출가해녀 관련 자료조사	- 영상촬영 및 기록 - 자료집 간행 예정

2) 해녀연구 및 해양문화

박물관에서는 제주해녀의 세계 문명사적인 가치를 규명하고 남아있는 해녀문화를 정리함과 동시에 일본에 있는 나잠업자인 일본 아마와 해양문명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의 일환으로 해녀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녀문화의 발전방향도모색하고 있다.

〈표 2〉 해녀 및 해양문화 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

연도별	기간	명칭	주요내용	
2007	1.25	국회 이어도 정책 토론회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주민의 정신적 고향-이어도"	
10.24		제2회 제주해녀 『제주 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방향』: "해 국제학술 심포지엄 생태마을 지정과 생태박물관의 가능성"		
2008	6.20 ~21	제3회 한·일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유산』: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조사보고"	
2009	6.8~9 제4회 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녀의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외 보존대책, "해녀노래의 전승보전과 대책"	

3) 자료집 발간 및 CD 제작

(1) 『바당의 어멍-제주해녀』 발간(2007)

사진집은 해녀의 생업문화 사진자료를 집대성하여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해녀의 역사 문화 자료 소개 및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영문번역 자료를 덧붙였다. 담긴 내용은 해녀 얼굴·어린해녀·작업출발· 굿물질·뱃물질·물질작업·귀환·소득·판매·기원·일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2) 『제주해녀의 노래 CD』기념품 제작(2008)

해녀문화 유산의 대표격인 '해녀노래'의 전승 보전 및 국내·외로 홍보를 위하여 국·영문 설명을 곁들인 가사집과 함께 CD 음반 2,000부를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1932년 해녀항일 운동 당시 해녀들에 의해 불렸던 '해녀항일가', 육지부로 돈을 벌러 출가물질 가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출가해녀의 노래', 해녀들이 놀 때 여흥을 즐기 면서 혹은 무대 위에서 불렀던 '해녀놀이요'가 실려 있다.

(3)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책자발간(2009)

제주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제주해 녀 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테이터베이스화를 위해 2006년 7월~2007년 8월까지 해녀문화탐방으로 조사된 자료를 정리했다. 실린 내용은 제주도 내 100개 어촌 계를 해녀 수와 작업 현황, 바다 어장의 실태, 공동체 규약 및 무속의례, 해녀노래, 생애력, 언어 등으로 대별하여 조사·수록했다.

3.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강좌 및 문화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은 해녀문화를 직접적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에서 어업 노동요 전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업과 함께 불리던 것들로 해녀들이 배에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래'를 비롯하여, 테우를 이동하면서 부르던 '테우 노젓는 소리', 갈치를 낚으면서 불렀던 '갈치낚는 소리' 등 이러한 전통의 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소멸위기에 있으므로 이 분야의 예능 보유자를 초빙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시행하여 전승보존 기회로 삼고자 했다.

또 '찾아가는 해녀노래' 전수교육은 지역주민과 문화유산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어촌계 중심으로 해녀노래 교육을 실시하여 해녀 자신들의 문화를 되새기며 그 중요성을 인식, 전승자의 역을 담당하도록 해서 전승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해녀들의 물질작업 도구인 '테왁망사리 만들기' 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직접 테왁망사리 재료인 억새를 이용해서 꼬고 조립하면서 살아있는 지혜를 익혀 나간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색종이를 이용하여 해녀들이 작업하는 몸동작 등을 오려서 그림으로 만드는 체험은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함이다.

〈표 3〉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약	〈丑	3>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연도별	기간	행사명	주요내용	실적
2007	2.10 ~12.29	어업노동요전수교육	·대상: 해녀와 제주도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 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43주 86시간 (수료자11명)
	1.5 ~12.27	어업노동요 전수교육	·대상 : 제주도민 ·내용 : 해녀노래 등 어업노동요	47주 94시간 (수료자18명)
2008	4~12.	해녀색종이 오려붙인 그림 기리에 교육	·대상 : 제주여성 및 해녀, 초등생 ·내용 : 해녀그림 만들기	도내 8개교, 50명 교육
	8월	체험교육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테왁망사리 만들기	30명

4. 해녀문화유산 전시홍보 및 축제 한마당

1) 해녀문화축제

해녀 문화축제는 다양한 해녀의 생업과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면서 해녀문화를 총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 주민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을 마련하여 제주해녀들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대내외에 해녀문화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표 4〉해녀문화축제 프로그

연도별	기간	주요 행사내용	
	6.9(토)	좀수굿 및 해녀민속예술공연, 해녀옷 패션쇼,	
2007	0.9(上)	도내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등.	
	10.9(화)	해녀민속예술공연, 해녀왕 선발대회, 해녀양씨 영화상영회, 중	
		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해녀음식 맛보기 체험 등.	
2008	10.10(금)	영등굿 요왕맞이 공연, 해녀민속예술공연, 해녀왕 선발대회,해	
	~11(토)	녀음식체험, 해녀노래자랑 등.	







[그림 2] 해녀축제공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해녀민속예술공연은 축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제가 해녀문화의 전승보존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공연, 해녀들의 무속신앙의 대표격인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영등굿'과 잠수굿 보유자를 초청하여 시연하고 있으며, 해녀들의 여흥을 달랬던 '해녀놀이', 해녀항일의 의지가 담긴 '해녀항일가', '해녀춤' 등을 공연한다.

부대행사로는 구좌읍 하도리 부녀회의 해녀음식 맛체험(성게국수, 우미냉채), 해 녀왕 선발대회, 하도리 어촌계의 해산물 판매 등 해녀들의 삶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전도 어린이들의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해녀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특별전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전이나 기획전은 조사 연구의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아마(海女)를 이해하고 제주해녀와 비교하는 기회를 갖는 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미에현(三重縣) 도바시(鳥羽市) 바다박물관(海の 博物館)에서 기증한 일본 아마 도구 25점은 해녀박물관에 상설전시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해 녀만이 아닌 제주여성, 제주민속과 관련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해녀와 해양문화 등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표 5〉특별전시

연도별	기간	주요행사내용	수량
2008	6.9 ~ 6.30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 비교』	사진 40점, 도구 20점
2008	10.10~10.13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 52점

3) '제주해녀의 삶' 사진 순회전

제주해녀문화를 전국에 소개시키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 혹은 수 산 해양관련 전시관을 순회하면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다. 특히 김포, 광주, 김해 공항 등을 순회, 해녀박물관 홍보 및 제주도 홍보도 곁들이고 있다.

〈표 6〉 해녀사진 순회전

연도별	기간	주요행사내용	수량
	1.27~3.30	부산수산과학관	57점
2007	4.4~4.30	국립민속박물관	57점
	5.1~6.10	거제어촌민속전시관	57점
	6.12~7.3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57점
	8.6~9.30	안산어촌민속전시관	57점
2008	1.8~2.9	광주공항	57점
	2.18~3.17	광주고속터미널	57점
	3.18~5.15	광주고속전철	57점
	5.30~31	제주시 평생학습축제	20점
	7.10~7.12	2008 한국환경한마당 해녀사진전	57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8~10.10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서귀포시	20점
		수산물 명품전"	
	10.10~10.13	성읍민속마을 박물관나들이	36점

4) 초대전

포구 및 제주민속, 해녀, 예술작품 등의 초대전을 실시하여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초대전시

연도별	기간	주요행사내용	수량
2007	4.9~5.31	제주영상동인 '제주포구' 사진 초대전	40여점
	7.11~8.31	전국청소년 민속사생대회 입상작 전시	40여점
	9.1~9.15	일본·중국 국제환경사진 초대전	40여점
	12.10~1.9	'제주의 돌담'사진전	40여점
2008	1.10~2.1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사진초대전 섬에서	40여점
	2.10~2.24	부는 바람 사진전	40여점
	3.3~3.30	강만보 제주민속 사진초대전	38점
	4.1~4.25	기리에(切繪) 색종이 작품 초대전	40여점
	4.27~5.27	2008 제주·천안 연의전	80여점
	7.8~7.31	서각예술작품의 향연	40여점
	8.4~9.19	울릉도·독도 고지도 순회전	36점

5. 공연을 통한 국내 · 외 문화교류사업

▶ 한・일 해녀교류

일본 미에현(三重縣) 도바시(羽市) 섬여행사에서 제주해녀와 일본아마의 교류를 위한 공연과 아마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녀노래 보유자 및 우도의 해 녀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했다.

해녀 노래 공연결과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일본의 관람객들은 원시적인 어업노동 요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다. 그 외에도 제주해녀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학술발표, 문화 탐방 및 시설을 방문했다.

방문의 성과로는 아마와의 교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주 해녀노래 홍보 및 해녀문화의 가치를 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한·일 해녀노래 공연(2008. 9. 20)

6. 문화시설을 이용한 워크숍 및 영화상영회

1) 민요학회 제10회 학술세미나

제주 해녀 노래의 가치와 전승 보존 방안을 주제로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한 종 목인 '해녀노래'의 전승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7일 해녀박물 관에서 민요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해녀 노래의 전승 양상, 해녀노래의 문화사적 의미와 가치, 도외지역의 해녀 노래 분포양상, 제주해녀 노래의 음악적 특징, 제주해녀 노래 전승방안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해녀노래 시연도 이루어졌다.

2) 해녀양씨(海女のリャンさん) 영화상영회

하마무라 마사키(原村政樹) 감독의 해녀양씨(海女のリャンさん) 영화는 재일 거주민 중 출가물질 해녀 1세대의 물질작업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해녀에 대한 이해 및 가치 선양, 감동적 스토리를 통한 문화적・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 간	대 상	장 소
2006	어촌계의 해녀들	제주도 내 5개 수협
2007	제주도민	해녀박물관

학생 및 제주도민

조천읍 항일기념관

〈표 8〉 영화상영 대상 및 장소

2008



[그림 4] 다큐멘터리 상영

이 작품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오사카에 살고 있는 제주해녀 출신 양의헌 할머니(1916년 생)의 생활을 3년에 걸쳐 기록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해녀로서 일본 각지의 바다를 돌면서 물질하는 모습과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귀국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조선 통신사인 고 신기수 씨가 촬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기록 영화를 사꾸라 영화 제작자가 입수하여 한편의 다큐멘타리로 완성시켰다. 38년 전의 필름과 현재의 영상을 교차시키면서 한 여성의 민족 차별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성장시킨 한 가족의

역사를 재일 한국인, 일본인, 가족들의 카메라로 찍어낸 영상이다.

5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하는 모습과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북한, 일본에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식들의 재회에서 국가 간의 대립이 가져온 비극과 가족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Ⅳ.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

전 세계적으로 제주해녀는 물질 작업의 특수성과 문명사적 가치로 인해 독특한 생업과 문화를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물질 작업을 하는 해녀 수가 급격히 줄어들 어 생업과 문화의 지속적 전승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 해녀의 세계 문명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독특한 해녀 문화의 전승보전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해녀박물관과 해녀문화의 관광 자원화, 관광명소화, 관광상품화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형 관 광지로의 개발조성과 함께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강화로써 해녀문화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해녀민속 전승 보전을 위한 해녀축제의 활성화 및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 주위에 해녀 체험과 홈스테이가 가능한 해녀 민속촌 조성 그리고 해녀항일관, 이어도 홍보관 등 해양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박물관을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참고문헌

민요학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의 가치와 전승보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09. 세계섬학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제주특별자치도, 2002. ____ , 「해녀박물관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해녀 : 항일운동ㆍ문화 유산·해양문명」, 제주특별자치도, 2006.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조규익 외.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 연구』, 민속 원. 2005. 제주학회, 「해녀박물관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 존방향」, 제주특별자치도, 2007. ,「해녀박물관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해녀의 생업과 문화 유산1.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해녀박물관. 『바당의 어멍-제주해녀』. 제주콤. 2007. ,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하나 CNC. 2009.

제주도 내 고문헌 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 방안

윤 봉 택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차 례〉----

- I . 머리말
- Ⅱ. 제주도 내 고문헌 조사 수집과 현황
- Ⅲ. 제주도 내 소장 고문헌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 Ⅳ.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고문헌은 역사 연구에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 크게 고전적과 고문서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고문헌은 제주의 지 방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 내에서는 고문헌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장된 고전적류에 대하여는 1983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현재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의 용역에 의하여 조사된 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문서에 대하여는 고창석에 의하여 1993년부터 각지역에서 발굴된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2002년에 발간된『濟州島古文書研究』가 있으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등에서 각종 문헌자료를 영인본 등으로 발간한 바가 있다.

그리고 불교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찰 소장 유형자료를 발굴하면서 사찰 소장 고문헌을 조사한 바가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을별 산 재하여 있는 고문헌 자료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장된 고문헌 사료를 분석·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주도 내 고문헌조사 수집과 현황

고문헌 조사와 수집은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아니면 전문 조사연구기 관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질 수가 있다. 고문헌에 대한 중앙 단위 조사·연구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한 국학중앙연구원·문화재청·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방 단위로는 각 대 학교에서 지역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백제문화권역에서는 전북 대학교(고문서)·전남대학교(고전적) 등에서 조사 수집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의 전체적인 고전적 전수조사는 1983년에 이뤄졌으나, 이는 문화 재청의 조사용역에 의한 조사로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대행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2개월도 채 못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제주도 내 고문서 조사는 주로 고창석에 의하여 조사·연구됐으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전자의 조사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서만 조사가 이뤄져 왔을 뿐, 제주도 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없었다. 이는 그동안 사료적 측면에서 고문서를 목록화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문서의 자료적 가치를 소홀히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며,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았음도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1. 고전적 조사 수집 현황

1) 문화재청 조사 자료

제주도 내에서 고전적 조사는 문화재청⁴²⁾에 의하여 이뤄졌다. 이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전적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며, 1983년 문화재청에 의하여 조사된 제주도 내 고전적은 391종 1.204책으로서, 아래와 같다.

〈丑	1)	〉ズ	열	별	분류

적	ይ	계	제주시내 권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i>조</i> 천면	구좌읍	서귀포 시내권역	성신읍	남원읍	대정읍
전	種	391	59	115	75	18	20	1	61	29	7	6
적	#	1,204	166	361	225	73	154	1	126	63	26	9

⁴²⁾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제9집, 충청북도·제주도, 1996, p. 235~243.

〈표 2〉 판종별 분류

판종	계	목판본	필사본	석인본	원본	연활자본	초고본	판하본	활자본	목활자본
종	391	186	78	65	20	32	9	1	3	8

〈표 3〉시대별 분류

시대	계	14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임란전·후	인종~철종	고 종 ~순 종
종	391	1	11	22	56	84	1	162	55

2) 내용별(4분법) 분류

〈丑 4〉 經部

유형	易類	書類	詩類	春秋類	禮類	孝經類	總集類	大學類	中庸類	論語類	孟子類	小學類
종	10	11	7	3	14	1	30	8	9	6	17	7
책	44	54	28	5	43	1	46	8	9	32	74	13

〈丑 5〉史部

유형	編年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類等	傳記類	譜系類	政法類	地理類
종	6	12	7	4	4	4	5	9
책	37	39	19	4	4	4	5	16

〈丑 6〉 子部

유형	儒家類	道家類	釋迦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雜家類	戏類	術數類	藝術類	譯學類	類書類	抛款
종	16	4	1	4	2	18	13	1	26	2	1	19	2
책	51	4	1	5	5	108	70	2	143	2	1	101	2

〈丑 7〉集部

유형	總集類	別集類	書簡類	詩文評類	小說類	雜著類
종	32	18	5	2	3	32
책	113	45	5	2	3	32

3) 기타 연구 자료

제주도 내에서 개간된 판본류 또는 제주도 내 소장 고전적에 대한 일반조사 연구는 2003년 문화재청과 (재)불교중앙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 의하여 제주도 내 사찰에 한하여 조사431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도 내 개간 책판류는 고려본 『금광명경문구』 1종을 포함 118종(經部 39, 史部 15, 子部 51, 集部 13)이었으며, 『예기천견록』등 11종이 현전⁴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 내 일부 소장기관에서 소장 자료목록 또는 제주도 내 개간 판본류에 대한 조사 연구⁴⁵⁾가 있다.

〈표 8〉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류

분 류	經部(종)	史部(종)	子部(종)	集部(종)	비고
조선개국~1435	1				1종
1436~1677	15	4	20	8	47종
1678~1899	23	11	31	5	70종

⁴³⁾ 문화재청·(재)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2003.

⁴⁴⁾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3. p. 94.

⁴⁵⁾ ①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고인쇄문화』 제8집, 고인쇄박물관, 2001.

②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사실 조명-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③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版 연구」, 『서지학연구』제34집, 서지학회, 2006.

2. 고문서 조사 · 수집 현황

현재 제주도 내에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은 류의 고문서가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전수 조사는 이뤄진 바가 없다. 그러함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제주하원리호적중초가 조사되어 1992년 영인본으로 발간되었다. 이듬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1993년부터 덕수리호적중초를 시작으로, 1996년 사계리, 2000년 하모리 호적중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주도 내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1) 고문서 영인본 발간 현황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회관에 소장된 하원리호적 중초를 발굴하여『濟州河源里戶籍中草』권1~2로 영인 발간하였다.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영인본

1993~95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소장된 덕수리호적중초를 발굴하여 『濟州大靜縣德水里戶籍中草』 권1~4로 영인 발간하였다.

1996~98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소장되어 있는 사계리호적중초를 발굴하여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권1~6으로 영인 발간하였다.

2000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하모3리에 소장되어 있는 하모슬리호적중초를 발굴하여 『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권1~5로 영인 발간하였다.

2) 고문서 연구 현황

제주도 내 소장된 고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 내 소장 고문서에 대한 연구 현황은 대략 아래와 같다.

김지홍 【온평리 고문서 연구 46)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답매매문기의 연구 47)

김동전. '호적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48)

고창석, 「17・8세기 제주지방 분재문기의 연구」49)

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50)

손문금. 「19세기 제주도 사계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호주승계의 의미 51)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 연구 52)

임학성,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濟州牧丙 午式戶籍大帳'단편,53)

김현영. 「19세기 제주 향리층의 호구 변동 54)

Ⅲ. 제주도 내 소장 고문헌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미발굴 고문헌을 어떻게 찾아내고 보존 관리할 것인가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 방법론에서부터 분류·보존방법·양식·해제 또는 해석·재료

⁴⁶⁾ 김지홍,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제6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7.

⁴⁷⁾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답매매문기의 연구(1)」, 『탐라문화』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⁴⁸⁾ 김동전, '호구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 『동서사학』제6·7호, 동서사학 회. 2000.

⁴⁹⁾ 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애월읍 곽지리 토지문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⁵⁰⁾ 고창석, 「17·8세기 제주지방 분재문기의 연구」, 『고문서연구』제17호, 한국고문서학회, (서울; 2000).

⁵¹⁾ 손문금, 「19세기 제주도 사계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호주승계의 의미」, 『제주도연구』제23집, 제주학회, 2003.

⁵²⁾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 연구-하원동 강성택씨가의 소장문서』, 『탐라문화』제24호, 제 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⁵³⁾ 임학성,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濟州牧丙午式戶籍大帳'단편」, 『 고문서연구』제26호, 한국고문서학회, 2005.

⁵⁴⁾ 권기중, 「19세기 제주 향리층의 호구 변동-대정현 동성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57호, 성 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지질)·기록관리·감정·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문헌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행정적 접근 방식에서 제주도 내 소장된 고문헌을 중심으로 보존· 관리·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내 소장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방안

고문헌은 과거에 생산된 문헌을 말하는 것으로, 고전적과 고문서로 구분이 된다. 고전적은 편찬·편집·저술·기록·장부 등으로 기록된 자료로서 관에서 발간한 관찬과 사찰·향교·개인이 저술한 사찬 자료가 있다. 고문서인 경우 고전적보다 먼저 유통이 되었다. 그러나 고문서는 고전적과 같이 편찬된 것이 아닌, 단편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산된 문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적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보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조에 있어서 고문서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15세기 중엽부터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에는 일정한 양식의 공적 또는 사적 문서가 작성되고 비치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각종 형식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련된 문서를 지니게 되었으며,55) 조선 후기에 와서는 공·사문서의 기본이 되는 서식을 집대성한 『儒胥必知』가 목판본으로 대량 간행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문헌은 작게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밝히는 '기본사료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인 학술연구자료'56)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나라에 있어 고문헌 특히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白麟, 金東旭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제주도 내에서는 1983년 제주도 내 소장 고전적에 대한조사가 이뤄지면서, 1990년대 고창석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주도 내 고문헌인 경우 4·3을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궤'에 보존되어 현전하고 있으며, 특히 호적중초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도 내 소장 고문서에

⁵⁵⁾ 이수건, 「고문서의 조사·정리와 사료적 가치」, 『영남학』제9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p. 12.

⁵⁶⁾ 이수건, 상게서 p. 11.

대한 관심이 고전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부분 문서가 초서와 이두로 작성되어 있어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에 소장된 고문헌 가운데 고전적에 대하여는 1983년 문화재청에 의하여 먼저 이뤄졌고, 제주도 내에서 개간된 책판류에 대하여는 일부 연구된 바가 있으나, 고전적류에 대한 일제 조사나 연구는 없었다. 다만 『탐라지』등 일부 전적류가 대학연구기관 또는 문화원 등에서 번역 소개되거나 문집류 등이 영인된 바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의 제주도 내 관련 고문헌조사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서귀포시에서 국사편찬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에 소장된 44종 48책을 『서귀포시 고서총람』56)으로 영인한 것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주별도에서 제주사 정립 차원에서 고문헌 중 제주 관련 부분을 발췌 영인 출간한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제주목에서 개간되었거나 또는 제주목 관련 고문헌에 대하여 문헌적·서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된 바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도 내 대부분 각 법정(자연)부락에는 마을마다 오래 전 부터 전승 보관되어온 '궤'가 있다. 이 '궤'에는 마을의 호적중초를 비롯하여 마을과 관련된 각종 고서와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다. 마을에서는 이를 매우 신성시하여 '궤'에 소장된 문헌을 살펴볼 때는 미리 '궤'를 상 위에 올려놓아 분향 배례한 다음 '궤'를 열어볼 만큼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궤'의 보존 관리가 허술해지고, 따라서 보관된 문헌들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에서 제주도 내에서 개간되거나 현재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 자료수집과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세워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력 확보와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연구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존하기에는 그 물량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체계적인 조사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즉행정에서는 제주도 내 고문헌 소장 자료를 조사 발굴·정리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다음 그 자료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하여야 한다.

⁵⁶⁾ 서귀포시, 『서귀포시 고서총람』1~13권, 1994.

지금까지 행정에서 고문헌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고문헌에 대한 정보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행정이 무지하여 그러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 학자들이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된 고문헌을 완전하게 정리 보존하기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의 지질을 분석하고 자료 손실 방지를 위해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훼손된 자료는보존과학 처리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이용자를 위하여 디지털 영상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고문헌 특히 고문서에 나오는 초서와 이두를 연구하고 판독과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57)가 되도록 해야 하며, 문서를 관리할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조사된 고문헌이 훼손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전시관 마련에 행정이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문헌은 그 지역 역사의소산물이며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2. 수집자료 연구 활용 방안

행정 또는 연구기관에서 고문헌을 수집·조사하였다 하여도 자료에 대한 분류와 양식·형태·감정·활용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의 학문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고문헌 특히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우선 이를 정확하게 읽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그 지역의 사회문화 등과 결부해서 해석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서를 해독하고 연구해야만 비로소 고문서의 진정한 가치가드러날 것임은 물론,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와 소통이 되는 살아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58)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료를 소장 연구하였다 하여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용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를 위협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료로서의 고문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활용연구. 서지학·고문헌학·

⁵⁷⁾ 朴秉濠,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제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p. 24~25

⁵⁸⁾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제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p. 71.

금석학 등 고문헌학과의 연계 연구가 이뤄지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59)가 다양하게 이뤄져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변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연구기관이 공동 노력과 함께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I.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 내 고문헌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문헌은 누구나 접하기도 전에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갖는 사료이다. 이는 고문헌이 대부분 한문과 이두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한문을 모르면, 고문헌은 관련학자들에 의해서만 조사·연구되는 학문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고문헌 자료가 소장되어 있어도 효율적 보존 관리보다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온 유산 관리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문헌은 훼손되고 있고, 점차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적극적인 사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문헌 자료 발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문헌은 이미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 수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행정에서 이를 조사·수집·발굴할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고문헌은 당시대의 지역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료이며, 후손에게 길이 전해 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행정에서 고문헌 조사 계획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도가 출연한 여러 연구기관이 있지만, 고문헌조사 연구 인력은 사실상 전무하여, 조사·연구·해석·판독 등을 위해서는 외부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네 번째는 지역 대학에서 관련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하고, 연구에 대한 학문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문헌학 등 관련 학과

⁵⁹⁾ 朴秉濠, 전게서

를 개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문서는 대부분 한문(草書와 吏讀)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통시킨 문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헌이요 유산인 것이다. 당시대의 사회·문화·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유산을 오늘에 와서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은 학문적 수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고문헌에 대한 조사·연구는 행정과 학문기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행정과 학문기관 간에 서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제9집. 충청북도‧제주도. 1996.
- 문화재청·(재)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 문화재』, 2003.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사실 조명-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9, 2006.
-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版 연구」,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 김지홍, 「온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7.
-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답매매문기의 연구(1)」, 『탐라문화』 2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김동전, 「호구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 『동서사학』제6·7, 동서사학회 2000
- 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애월읍 곽지리 토지문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 고창석, 「17·8세기 제주지방 분재문기의 연구」, 『고문서연구』 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 손문금, 「19세기 제주도 사계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호주승계의 의미」, 『제주도 연구』 23, 제주학회, 2003.
-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분재기 연구-하원동 강성택씨가의 소장문서』, 『탐라 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임학성, 「현존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들과 신발견 1666년도 '濟州牧丙午 式戶籍大帳' 단편」,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2.
- 권기중, 「19세기 제주 향리층의 호구 변동-대정현 동성리를 중심으로」, 『대동 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이수건, 「고문서의 조사·정리와 사료적 가치」, 『영남학』 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서귀포시, 『서귀포시 고서총람』 1~13권, 서귀포시, 1994.

村秉濠,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전경목, 『고문서의 조사와 정리 방법론』, 『영남학』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8집

인 쇄 일 2009. 8. .

발 행 일 2009. 8.

발 행 인 강영철

면집위원 고재만, 고창석, 김가영, 양상숙, 이광후

발행 • 편집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시 이도1동 1244-4 8F

 $Tel.\ 064)\ 748-9814,\ Fax.\ 064)\ 748-9815$

인 쇄 처 시민당인쇄사

Tel. 064) 722-2915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